

#C2596

Galatians 1-2

By Chuck Smith

갈라디아서

Chapter 1

Galatia was not a city. It was a territory. It encompassed an area that is now in Turkey. There were several churches founded by Paul in Galatia. And following Paul's evangelistic efforts through the area and the founding of many churches, there were men who came in and they began to pervert the gospel that Paul had taught, the gospel of grace. And they began to preach another gospel which is not a gospel.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둘러싸인 한 지역으로 현재 터키 나라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수고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Because the word gospel means good news. And if you tell me that God will forgive me all of my sins and account me righteous, if I will simply believe in Jesus Christ, that's good news. But if you tell me that I must then follow certain rules and regulations and be obedient to the law and keep the law of God in order to be righteous, that's not good news because no one's been able to do that. And so Paul is writing to the Galatians to correct this teaching that had followed his ministry in their midst and to free them again from that bondage of the law that men were seeking to put them under.

복음 (gospel) 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내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여 내가 그것을 단순히 믿으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내게 말하기를 의롭게 되려면 어떤 규칙과 규율을 따라야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바르게하며 그들에게 얽어매려하는 율법의 속박에서 다시 해방시키려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We in the Gentile church today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because of this man, Paul the apostle. Had it not been for his strong stubborn stand on salvation through grace, Christianity could have reverted to just another Jewish sect. But Paul made his stand in front of all of them against all of them really insisting on this gospel of grace. Salvation through faith and through the grace of God.

오늘날 이방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 감사할것이 많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굽히지 않는 강한 바울의 주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그냥 또 다른 유대교의 한 종파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주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것입니다.

And so Galatians is a very strong treatise against any form of legality. Any attempt to become righteous by our works or more righteous through our obedience to the law and it is really setting forth in a very powerful way the gospel of grace and justification by faith. It was this epistle to the Galatians that brought on the Protestant revolution, the revolution, yes; reformation which was a revolution from the corruptive practices of the church of that day.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형태의 율법도 반대하는 매우 강력한 논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 지려 하거나 법을 순종함으로써 더 의로워 지려는 시도와 은혜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것을 아주 강력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조교개혁을 불러 일으킨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개혁은 당시의 교회의 부패한 의식으로 인해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Martin Luther was much like Paul the apostle in that he was one of those fellows who went all out in his religious practices. He was one of the most monkish of all of the monks. And had gone to Rome and in order to appease God was climbing the steps on his knees, one step at a time, offering the prayers and all at each step. And as he was going up these steps the Spirit of God spoke to his heart out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Marti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And that burned in his heart. And thus was born the Protestant reformation.

마틴 루터도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종교 의식을 빠져 나온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대단히 흡사 했습니다. 그는 수도승 중에도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며 각 계단 마다 오를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This glorious epistle that has set men free and has brought men into a vit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This epistle that opens the door to all men so that I may come freely unto God because I come to God and I learn to come to God through this epistle on the basis of God's love and God's grace, not on the basis of my merit, my works, my efforts.

이 영광스러운 서신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내 장점이나 내가 한 일이나 나의노력을 기반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나올수 있다는것을 배웠습니다.

Now these false teachers that came in,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always sought to do was to discredit Paul. This is a typical ploy of false teachers. If you have been studying and learning under a minister, a man of God, they'll come in and their first thing is to try to discredit the one that you have been studying under or the one that you were converted under. Now it seems that these false teachers never really seek to evangelize. But they're always trying to go into those who believe and change their beliefs.

이제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항상 추구하는 첫 번째 일은 바울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선생의 계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하거나 배우고 있다면 그들이 들어와 첫 번째 하는 일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을 개심 시킨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진정으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언제나 믿는 자를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바꾸려 합니다.

So Paul, first of all, reaffirms his apostleship and he says though that it is,

(not of men, neithe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1:1)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도 직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이지만 다른 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1:1)

It is interesting how that even today, people are asking the same questions that the Pharisees asked John the Baptist while he was baptizing down at the Jordan river. They said,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do this? From whence comes your authority? When Jesus cleansed the temple, they asked Him the same question.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do this” (Mark 11:28)? Paul. People it seems are always looking for the basis of your authority. And many times today people come up, especially the Mormons, and they’ll say,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baptize? Because they teach that they are the only ones who have the right to give authority to anyone to baptize. They are the only true church because they are the only church which still has twelve apostles governing the church.

침례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똑 같은 질문을 심지어 어떻게 오늘날도 하는가를 볼때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 어디로부터 너의 권세가 왔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누가 이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마가 11:28)**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의 권세의 근거가 어디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 번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물문 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당신에게 침례 주는 권세를 주었느냐? 그들은 자기들만 침례 줄 권세가 있는 옳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회만 아직까지도 12 사도가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And their twelve apostles are the only ones who can ordain or grant authority unto men to exercise spiritual ministries. And so their trip is always an authority trip, Who gave you the authority? And so the question of really of Paul. Well, who gave Paul the authority to be an apostle? Who laid hands on Paul? And of course, we have also within the church today what they call the apostolic succession of the laying on of hands, as far as authority goes in the high church. They ordain the men for the ministry and the bishop lays his hand upon the candidate as he ordains him and this bishop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by another bishop who had hands laid on him and back to Peter.

그리고 그들의 12 사도만이 사람에게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할수 있는 유일한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행은 언제나 권세있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 질문이 사실 바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울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안수 하였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높은 권위를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도 역시 오늘의 교회 안에서 안수하는 사도적 계승권 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모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임명하며 그를 임명할때 감독은 목회자 후보생을 안수하며 그 감독은 다른 감독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 감독도 또 다른 감독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으며 그것이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So that you have the apostolic laying on of hands. So as the bishop lays his hand upon my head and consecrates me to the ministry, I in my mind perceive this hand as it goes, b-b-b-b-b-b-back to Peter. You know, you see this sort of quick frame kind of a thing all the way back to Peter and Peter is laying his hand on me and ordaining me for the ministry, the apostolic succession of the laying on of hands. And unless you have the bishop who had a bishop who had a bishop who had a bishop, then you're not really ordained.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안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이 나를 안수하여 그 사역을 위해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이 손이 베드로에게 까지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신속한 진행은 베드로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가 나를 안수하고 사역에 임명하는 안수의 사도적 연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독을 모셨던 감독을 모시며 그 감독도 그 위의 감독을 모셨고 베드로를 감독으로 모셨던 감독까지 연결된 감독을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임명 받은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Paul said, Hey, I wasn't ordained by man. I'm an apostle but "not of men, neither by man." I didn't look to man for my authority. I wasn't called by man. I wasn't ordained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임명 받은 게 아니요, 나는 사도이지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니라.”** 나는 나의 권세를 위하여 사람을 의뢰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임명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명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So Paul's authority goes back one greater than Peter, to Jesus Christ and to God the Father. Now it is my feeling that the ordination of man is totally worthless. I'm not interested in being ordained by man. I believe that there is only one who can really ordain a man to the ministry and that is Jesus Christ. I believe that men at best can only ratify. Someone laying their hands on me isn't going to

qualify me for the ministry and unfortunatel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hands had been laid upon scoundrels and they've been proclaimed by this action as ministers of Jesus Christ. But they were not and never have been. They're charlatans, they're scoundrels. Though they have the papers to show that they're ordained to the ministry.

그러므로 바울의 권위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느낌에는 사람이 임명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임명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정말 목회자로 임명 할수 있는 분은 단 한분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준하는 것뿐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안수하는 것으로 내게 목회할수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사를 보면 무뢰한들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그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었고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들이 사역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증서를 가졌을찌라도, 그들은 엉터리며 무뢰한들입니다.

It isn't what man says about me that I'm concerned with, it's what God says about me. And so Paul, an apostle, "not of men, no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합니다.

And all of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unto the churches of Galatia (1:2):

So Paul is joining those companions of his in his writing to the church.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2)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교회의 그의 동료들과 연락을 합니다.

Now Paul quite often in the opening salutations of his epistles has some personal words to say but he really doesn't have much to say to the Galatians except the typical Pauline greeting of,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1:3),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의 인사말 서두에 자주 자기 개인적으로 할 말을 쓰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사도바울의 인사 외에는 할말이 많지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3)

The Greek word *grace* is a word that in its base meaning is beauty, charm. It has come to mean unmerited favor. And that is its theological kind of a definition. But there is always a beauty attached with grace. And it was the typical Greek greeting. Charis. Peace, the typical Jewish greeting, Shalom. Joined together always by Paul in his epistles,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1:4-5).

The opening salutation of Paul.

헬라어의 은혜는 아름다움, 매력 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얻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거기 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은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헬라어 인사말로써 카리스(은혜)와 평강입니다. 전형적인 유태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항상 “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1:4-5)

이제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Now in speaking of Jesus Christ, he declares that He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This world is governed by Satan. Jesus called Satan the prince of this world. And referring to him said, “The prince of this world is coming, and has nothing in me” (John 14:30). When Satan tempted Christ by showing to Him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 glory of them, and promised to give them to Jesus, if He would just bow down to Satan, Satan bragged, They are mine and I can give them to whomever I will. Jesus did not dispute that. And because Satan is the god of this world, because it is under his control, being given to him by man, it is a present evil world but the purpose of Jesus Christ is to deliver you, His children,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That is God’s will to deliver you from it.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부르기를 이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말씀 하시기를, “이후 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 할 것이 없으니”(요한 14:30)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유혹 할 때 사단이 약속하기를 만약 그가 사단에게 엎드려 절만 한다면 이것들을 예수에게 주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며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사단이 말할때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그에게 준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이 그의 지배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Now that deliverance is really twofold. When I believe in Jesus Christ, I am delivered from the hold that the world has on me. One of these days Jesus is going to deliver me out of the world. Right now He’s delivering me in the world. I have been delivered while I am here but one day He’s going to take me out of here and I will be delivered then fully from the present evil world. But now I am delivered while I am still here. It doesn’t have a hold on me any longer.

건져주심이란 정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붙들고 있던 세상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예수께서 이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예수께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께서 나를 여기로부터 데려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온전하게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아직 이곳에 있으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Now Paul immediately gets right into the issues.

I marvel [I’m shocked] that ye are so soon removed from him that called you into the grace of Christ unto another gospel (1:6):

They were called into the grace of Christ. They were taught salvation through faith. That it is not something you can earn, it is not something you deserve, it is not something you can purchase, it is something that you can only receive as a free gift of God on the basis, not of your works, not of your efforts, not of your merit but on the basis of your simple trust in Jesus Christ. The gospel of the grace of Christ.

이제 바울은 즉각 논쟁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1:6):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어 받는 것도 아니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의 일이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Unto another gospel:”

Which is not another (1:7);

That is, it isn't a gospel. It isn't good news.

there are those that would trouble you, and would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1:7).

There are still those today who are pervert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y again placing man under certain legal obligations or legal restraints, imposing upon man their rules, their regulations, their standards for holiness. That is not a gospel. If you give me a list of rules that I must abide by in order to be spiritual, that is not a gospel.

“다른 복음 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1:7):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1:7)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어떤 법적 의무나 법적 규제아래 두거나, 자기들의 규칙과 규정과 자기들의 거룩함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부과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지켜야 할 규칙의 항목을 준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I lived for years in a legalistic relationship with God. Trying to follow the rules, trying to follow the regulations. Signing the pledge; annually we had a pledge signing. As we committed ourselves to these rules, I will not do this and

that and the other thing. And I had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had all kinds of problems with. Because though I had signed the pledge, many times I did not keep the pledge that I had signed. And so I felt doubly guilty.

나는 여러 해동안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로 살았습니다. 규칙과 규정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약에 서명했는데 우리는 매년 이 서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 규칙에 맡기며 이 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며 다른 것들도 안 하겠다는 규정을 우리들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약에 서명했지만 여러차례 내가 서명한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배나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Then I came into the knowledge of the grace of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rather than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I developed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And I've been happy ever since. How I love this relationship I have. Oh, you say, you then do anything you want, huh? Well, yes, I do. But I just don't want to do a lot of things anymore, you see. I really live a more strict life now in this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than I did with the legal relationship with God. You see, there's something perverse about me and about rules. I don't like rules. And if I walk by a sign that says, Don't touch, I'll touch it. Don't walk on the grass, I'll step on it. I just don't like rules.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켰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지금의 이 관계를 나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를 유지 했을 때 보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와 규율은 맞지않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규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이 쓰여 있는 곳을 지나 갈 때에 나는 만지지 마시오 라고 써있으면 나는 만질 것이고, 잔디 위를 걸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밟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규율을 싫어합니다.

And there's something within me that sort of rebels against rules. I like this loving relationship I have with God. And I don't walk on the grass. And I don't touch. Not because I can't, I don't want to. If it doesn't please the Father, I don't want to do it. And so this loving relationship is so far superior to the legal relationship with God. And so this gospel that they were proclaiming in that they were trying to put the people into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Paul said, is not really another gospel. It's a perversion of the gospel.

And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1:8).

그리고 규율을 저항하는 무언가가 내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잔디 위로 걸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로 묶어 두려고 그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실제로 다른 복음이며 그것은 복음의 곡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1:8).

That's pretty strong language. "Let him be anathema." "If any man would preach other gospel, even if an angel of heaven would come and preach another gospel," even if Moroni would come and say, You've got to wear certain kind of underwear in order to be righteous and you must go through the temple rites and you must continue to be a faithful Mormon if you are to be saved; you see, that's adding to the salvation through the grace of God offered to us through Jesus Christ. That's putting the burden back on you.

그건 대단히 강경한 발언입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 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몰몬의 모로나이가 와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속옷을 특별한 종류의 것으로 입어야 하며 구원을 받으려면 사원의 관습을 따라야 하고 몰몬에 계속 성실 해야 한다” 고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더 보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I asked a young man one day who came up to me and I'm sure that he had been in a Sunday school class of mine years ago and he came up to me and said, Chuck, I'm no longer a Christian. Now I'm a Mormon. Now I'm sure that he wasn't schooled enough in the Mormon techniques at that point that he would say something like that, because now they seek t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But he said, I'm a Mormon. And I said, Oh, what a shame. And he said, What do you mean? I said, I mean just what you said. I think it would be a shame if a person cease being a Christian and started being a Mormon.

오래 전에 우리주일 학교의 내 반에 다녔던 한 청년이 내게와서 말하기를 “척,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몰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그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몰몬의 기교에 대해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확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몬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길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나는 몰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기를 “오, 수치스럽군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 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뜻 은 당신이 금방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생 각에 그리스도인이 되시는것을 중단하고 몰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일 같습니다.”

I said, But as a Mormon, tell me, Jerry, what do you, what is the base for your hope of eternal life? And he said, My faith in Jesus Christ and continued membership in the Mormon church. I said, Well, as far as I'm concerned you went one step too far. If the basis of your hope for eternal life is your faith in Jesus Christ, I can shake hands with you and say, Great, Jerry, continue. But the moment you add anything to that, then it's another gospel. And even if an angel of heaven has declared another gospel that would add something more than your faith in Jesus Christ as your hope for eternal life, then it is not a gospel. And so,

let them be accursed. For do I now persuade men, or God? or do I seek to please men? if I please men, I w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1:9-10).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몰몬으로써 내게 말해보시오, 제리. 당신의 영생의 소망을 무엇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몰몬 교회에 회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은 한 발 더 깊게 간 것 같군요. 만약 당신의 영생의 소망의 기초가 예수를 믿는 믿음 에 있다면 내가 당신과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제리,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그 어떤 것을 더하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당신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를 믿음보다 더 보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9-10)

Paul said I'm not really seeking to win a popularity contest among men. I'm seeking to please God. And I could give up this fight. I could give in to the legalism. But if I did, I would not be a servant of God. Thank God Paul stuck by his guns. Boy, our church today would be something vastly different if Paul had not stuck by his guns.

But I certify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Because I did not receive it from man, neither was I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11-12).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율법에 굴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이 심지를 굳게 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휴우! 만약 바울이 심지를 굳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 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1:11-12)

So this gospel of grace is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unto Paul. Now I am certain that God chose Paul and ordained Paul even as he said from his mother's womb that he should be the carrier of this gospel of grace because he was perfectly fitted by God for this task. You see, if you do not follow something to its end, then you always think, Well, my failure was not following it to its end. Had I followed it to the nth degree, then I would have found the satisfaction. And so I look at myself and I say, The failure lies in me, I didn't follow it completely enough.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가 말한대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것과 임명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 적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 나의 실패는 끝이 없다” 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갔더라면 내가 만족을 했을 텐 데.” 그리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말하기를 “실패의 원인은 내게 있어, 내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따라가질 않은 거야” 라고 말할것입니다.

It is an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I have made concerning those who are Buddhists. When a person tells me, Well, I'm a Buddhist, I usually ask them, Well, have you achieved then the perfection and that complete peace in Buddhism? And they will always respond by saying, I am working towards it. Never have I found one who has claimed to achieve. They're always working towards it. It's always this carrot out here at the end of the stick. I'm still working. I hope, you know. But I keep trying. If I work a little harder I might achieve, I might attain, I might find the peace and satisfaction. I'm working towards it.

내가 불교인들에 관해 재미있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저, 나는 불교신자예요” 라고 내게 말하면, 나는 항상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불교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평강에 도달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도달했다는 사람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향하여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나 그 막대기 끝에는 이 당근이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내 소망은 성취하는 것이지만 나는 계속 노력합니다. 만약 내가 일을 조금 더 힘쓰서 하면 그것을 성취 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게될것이고 평화와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Paul the apostle had followed the law of God circumspectly. He had followed it down all the way. He writes concerning himself that “as far as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is concerned, I was blameless” (Philippians 3:6). And so Paul speaks of his zeal above his own peers. His zeal for the lost, his zeal for God according to the law and all was above those around him. And yet Paul found himself zealously following the law still empty and frustrated and he did not find the fulfillment. And that is why when he came to the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was so transformed because he had followed the law all the way as far as you could and didn't find the peace.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 법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립보서 3:6).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료보다 지나친 그의 열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잃은 자들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지나쳤습니다. 바울 자신은 열심으로 율법을 따랐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좌절감을 느꼈으며 만족감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랐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자신이 할수 있는한 끝까지 따랐지만 평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Now Peter could not really be the emissary of grace because Peter had not really followed the law that circumspectly, you see. And so Peter would think, Well if I had only followed the law, I might have achieved, I might have attained, you know. And so Paul was especially prepared of God to receive this gospel of grace and it came to Paul by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He did not learn this in the church in Jerusalem or from the apostles or those brethren there. Taught to him by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For ye have heard of my conversation in time past in the Jews' religion, how that beyond measur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wasted it: And I profited in the Jews' religion above many of my equals in mine own nation, being more exceedingly zealous of the traditions of my fathers (1:13-14).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율법을 조심성있게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사자가 될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 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오직 율법만 따라 갔다면 나도 성공 했었을 터 인데. 내가 달성했었을 텐 데.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바울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배운 것도 아니요 또는 사도들로 부터 배운것도 아니요 또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배운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 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1:13-14)

Hey, I was at the top of the class. I went all the way. I went all out for the law and for Judaism. "Above my equals, more exceedingly zealous."

But when it pleased God, who separated me from my mother's womb, and called me by his grace, To reveal his Son in me,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Gentiles; immediately I conferred not with flesh and blood (1:15-16):

여보시오, 나는 우리 반 에서 최고 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유대교를 위해 힘을 다 했습니다. "여러 연합자보다 더 지나치게 열심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 하지 아니하고(1:15-16)

When Paul met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and there had that complete a hundred and eighty degree turn, from persecuting Jesus to following Jesus, such a revolution, total revolution. Paul did not then look up the Christian brothers to learn all about it. But he went out into the desert and spent several years out in the deserts of Saudi Arabia just waiting upon God and receiving the revelation directly from Jesus of the gospel according to grace. So this is not Paul's gospel, thi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delivered to Paul who in turn has delivered it to us. This is the truth of Christ; the salvation that is offered now unto you through your faith in Him. "I did not confer with flesh and blood."

I did not go up to Jerusalem to them which were the apostles before me; but I went into Arabia, and then I returned to Damascus (1:17).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하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백팔십도 달라지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찾아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복음에 관해 예수로 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여러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나는 혈육과 의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1:17)

I didn't even return to Jerusalem.

Then after three years I went up to Jerusalem (1:18)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8)

So he didn't get back to Jerusalem until about six-and-a-half, seven years after his conversion. He had gone from Jerusalem to Damascus to imprison the Christians, those that call upon God. He was met by Christ on the road so that when he got to Damascus he was a changed man. He ministered to the Christians that were there but realized that he needed to know more and went out into the deserts of Arabia and waited upon Jesus where he received the glorious revelation for three-and-a-half years; returned then to Damascus to stay there and now taught them for three years. And then finally came to Jerusalem.

to see Peter, and stayed with him for fifteen days. But of the other apostles he didn't see any of them, except James the brother of the Lord (1:18-19).

그래서 그는 회심후 약 육년 반 내지 칠년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가 다메섹에 도착 했을 때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했으며 그는 더 많이 배워야할 필요를 깨달았기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삼 년 반 동안 받았고 그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머물면서 삼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그와 함께 십 오일을 유할새 주의 종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1:18-19).

This is the James who authored the epistle of James. This is the James who became one of the leaders in the early church. This is not James, the brother of John the fisherman. He was beheaded before Paul got there. This is James, the brother of Jesus Christ mentioned in Mark's gospel and Paul here identifies him.

Now the things which I write unto you, behold, before God, I lie not. Afterwards I came into the regions of Syria and Cilicia (1:20-21);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형제로 어부였던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목 베임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며, 여기에서 바울도 그로 밝힙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1:20-21);

So Paul went from Damascus seven years after his conversion and then went on back to Tarsus where he was born and he went back to making tents.

I was unknown by face unto the churches of Judaea which were in Christ: But they only heard, That the one who had persecuted us in times past is now preaching the faith. And they glorified God in me (1:22-24).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 칠 년 뒤에 다메섹을 떠나 그가 태어났던 다소로 돌아가서 천막 짓는 일로 돌아 갔습니다.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 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1:22-24).

So Paul did not really have any close contact with the church in Jerusalem. In fact, the church in Jerusalem was a little fearful of Paul. They didn't know but what he was a KGB agent. And thus, they were really reluctant to receive Paul into fellowship. So Paul is emphasizing the fact that his gospel is not something that was passed unto him by the apostles or by any man. It was something that came to him through the direct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가까운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들은 바울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는 KGB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바울을 성도 교제에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복음이 사도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자기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Chapter 2

Then fourteen years later I went up again to Jerusalem with Barnabas, and I took Titus with me also (2:1).

So Paul no doubt had been ministering in Syria and Cilicia, the area around Tarsus, his home city, his hometown, and there had been Gentiles that he had brought to the faith of Jesus Christ, Titus being one of them. Now Barnabas, one of the brethren in the church there in Jerusalem decided to go to Tarsus because there was a work of God being accomplished in Antioch and he, there were a lot of Gentiles being saved and having heard of Paul, he decided to go get Paul to help in the church in Antioch. And so he went to Tarsus, searched out Paul and invited Paul to come back and to become a minister there at Antioch.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2:1).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인근 지역인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한 것에는 의심할여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디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한 형제인 바나바는 다수로 가기로 결심 했는데 그 이유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며 이방인들이 구원 받고 또 바울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돕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았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안디옥의 사역자가 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And he brought Paul to Jerusalem in order to sort of mend things with the apostles, to show them the truth of Paul's faith. And he said,

I went up by revelation, and communicated unto them that gospel which I was preaching among the Gentiles, but I communicated it to them privately those that were reputation, lest by any means I should run, or had run, in vain (2:2).

그리고 그는 바울이 사도들과 유대 관계를 갖게 하고 바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게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재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 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2)

In other words, he didn't really proclaim it openly to the church in Jerusalem because the church in Jerusalem was made up of a lot of former Pharisees and a lot of Jews who were still following the traditions of the law and who were still very observant in many aspects to the law. Jews who believed still that you could not be a Christian if you were a Gentile. Jews that still held to the fact that the only way you could be saved was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and then keeping the law of Moses and being circumcised. That was the basic mindset of the church in Jerusalem. And so Paul communicated in private to the apostles the gospel that he had been preaching, this gospel of grace.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드러 내어 놓고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에 바리세인이었던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과 여러 면으로 율법을 엄수하는 많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세의 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적으로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던 이 은혜의 복음을 사사로이 대화 하였습니다.

But Titus, who was with me, being a Greek, was not compelled to be circumcised (2:3):

They tried to encourage it and all but Paul withstood it. For their teaching was, Hey, you've got to be circumcised in order to be saved. And so Titus was not compelled as Paul withstood them.

That because of false brethren unawares who were brought in, who came in privily to spy out our liberty which we have in Christ Jesus, that they might bring us into bondage: To whom we gave place by subjection, no, not for a minute;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ight continue with you (2:4-5).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2:3)

그들은 그것을 격려하려고 하였고 모두가 그랬지만 바울은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저항함에 따라 디도는 강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 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저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2:4-5).

So Paul was standing for you Gentiles. Paul was standing up for the gospel that has been proclaimed to you. That you don't have to become a Jew. That you don't have to keep the law of Moses. All you have to do i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shall be saved" (Acts 16:31). Put your trust in Him and God will do His work in your life and transform you by the power of the Spirit and what you can't do for yourself, God will do for you. Salvation is God's gift through your faith in Jesus.

And so Paul had this conflict but he would not give in. He would not surrender to the pressures of the apostles there in Jerusalem, not for a moment.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굳게 섰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위해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 하실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투쟁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압력에 그는 일시라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But of these who seemed to be somewhat (2:6),

I like this. Paul's a tough cookie. It'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quickly we can lose sight of the teaching of Jesus. Jesus said, "If any man would be chief among you, let him become the servant of all" (Mark 10:44). And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at the true ministry was one of servanthood. He took the towel. He washed their feet, taking the place of a servant among them. And He said, Now do you see what I've done? Go and do likewise. "Happy are you if you do these things." That is, if you'll take the place of a servant. "If I, being your Lord, have served you, then you ought to serve one another" (John 13:14-17).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2:6)

나는 이 바울의 강한 바위 같음을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잃어 버릴 수 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4).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진정한 사역은 종이 되느—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수건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종의 위치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한 이 일을 보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은 만일 당신이 종의 자리를 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너의 주 이면서도 너를 섬겼으면 너도 서로 섬겨야 하느니라 (요한복음 13:14-17).

But always in the church it seems that we develop some kind of a hierarchy. We develop this little circle of, of leadership where we begin to stand in awe of men. Oh, you know, look. And it is so easy to become a prey to this and think, Ho-ho-ho, I am something, you know. I am somebody. And you begin then to insulate yourself from people. And you soon lose contact with people and you soon lose contact with reality.

그러나 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계급 조직을 발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서기 시작하는 작은 모임의 지도층을 발전시킵니다. 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것에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오 호호,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격리하기 시작할 것이며 얼마 후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잃고 그리고 또 현실과 멀어 지게 됩니다.

There is one servant of God that I highly admire. I think he's been used of God perhaps in a greater measure than almost any man living today. And when I met him, I was totally taken back by the simple, beautiful attitude of this man. And that's Billy Graham. He is the most unassuming person. All God has used him, you know, and people, oh, Billy Graham, you know, and I was that way. I would say, Oh, Billy Graham, you know and Billy Graham, you know and, and I was just, you know, just so in awe of him. And then he started talking with me and I became just totally wiped out with the beautiful openness and touchability of this man.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하나님의 한 종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광범위 하게 그를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났을 땐 그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 분 의 자세에 나는 정말로 놀랐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는 제일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일에 사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오오, 빌리 그레함! 하였고 나 역시 그러 했습니다. 오, 오 빌리 그레함! 참으로 경외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와 말씀 나누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열려있는 그의 마음과 나에게 와 닿는 그분의 능력에 난 나의 모든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One of our fellows who is a flight attendant for Western Airlines had Billy on his plane the other day. And so he said to him, When you're through with your duties why don't you come back and sit and talk? And so he sat down and was talking with Billy for about an hour on the plane and Billy says, Well, give me your phone number. Next time I'm out in California I'll give you a call. Maybe we can get together. With a flight attendant on Western Airlines! But that's the kind of a man he is. It's beautiful. No wonder God has used that man so mightily. No wonder God has been able to continue to use him through the years, because he has caught what it is to be a servant of God and not really placed himself in in this position of you know grandiose superiority over others.

웨스턴 항공 회사에 여객기 승무원으로 일하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의 비행기에 타셨답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 에게 말 하기를 당신의 일이

끝나면 여기 앉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빌리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약 한 시간쯤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자, 당신의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다음 번에 내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당신한테 전화를 할게요. 아마 우리가 만날 수 있을것입니다. 웨스턴 항공사 여객기 승무원과 만나다구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것은 의심할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쓰실 수 있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보다 높은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니다.

Now as, here was this little, you know, little group in Jerusalem. They had set themselves up and you know, they're establishing themselves and Paul says of them, "But of those who seem to be somewhat,"

(whatever they were, it makes no matter to me: for God doesn't accept any man's persons:) (2:6)

이제 예루살렘에 이 작은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유명하다는 이 들중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나니;(2:6)

Years ago when I was disenchanted with the particular denomination in which I was serving, I started looking around to other denominations. I was hoping to find the perfect denomination. I was going to corrupt it by joining it. And so I went before the bishops and before the presbyteries and before the leaders of other denominations because the thing that I didn't like in the denominationalis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ual hierarchy which created a political back-scratching kind of a mode, you know, getting up the line and getting in the positions of power and then, you know, there you sit in your chair, your pompous attitude, and the whole thing. And I didn't see that in true Christianity and I was, and I was looking for more of a fellowship where, Hey, you know, we all put our pants on one leg at a time, you know,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really. And so I went before many of these august bodies of leaders. You know, just their glasses and they sit there in their chairs and they, you know, scowl at you and, and, and gave you the whole, you know, they try to intimidate you. And that's the whole game, intimidation.

몇 년 전 내가 봉사했던 어떤 교파에서 매력을 상실 했을 때 나는 다른 교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교파를 찾기를 소망 했습니다. 나는 그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그교단을 부패하게 만들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교파들의 감독들 앞에도 갔었고, 장로회에도 갔었고, 그리고 다른 교파의 지도자들 에게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파주의에서 내가 싫어한 것은 교파 안에 있는 영적 계급제도 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퇴폐를 일으켰던 조직이요,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줄지어 섰다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앉으면 거만한 자세,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다리씩 차례대로 바지에 끼어 입듯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는 그런 성도 교제를 더욱더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존엄한 조직체의 지도자들의 앞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안경 너머로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하는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They tried to intimidate Paul. Intimidate him into having Titus circumcised and you know, and having Paul backed down. “But of these who seemed to be somewhat, (whatsoever they are, it doesn’t matter to me: for God accepts no man’s person:)” God doesn’t stand in awe of these men. God is not intimidated by them. But “the nations are as dust in the balances” in his eyes, how much less man (Isaiah 40:15).

그들은 바울을 협박 하려고 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도록 그를 협박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바울로 하여금 물러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들을 두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협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그의 눈에 사람은 얼마나 더 작은 (이사야 40:15) 것이겠습니까.

Now that’s an interesting little scripture, “The nations are as dust in the balances.” Many times a merchant, of course, the balances were, you know, you buy your goods, you buy them by the weights and so they had the shekel weights that they would place on the balances. They had the balanced scales. But a merchant would try to show you how honest he really was. So he would blow the dust off of the scales before he would put your merchandise on it in order that you’re not buying his dust. And it was a symbolic action to just show you, Hey, I’m the most honest guy around, you know. And so this dust in the balances is a picturesque thing, people could see the merchant blowing the dust off the balance before he put your merchandise on it so you’d know that you

were getting a fair deal. “The nations are like dust in the balances.” God can blow them away. How much less is man?

그것은 흥미로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여러 번 장사꾼들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무게로 사니깐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에 올려놓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밸런스가 있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 진실한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시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건을 올려 놓기 전에 먼저 먼지를 불어서 날려 보내지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들의 먼지를 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그건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시다 시피 나는 이 주위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울 위의 먼지는 그림 같은 것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장사꾼이 여러분의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저울에서 먼지를 불어 없애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한테 공명정대한 거래를 한다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열방은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 하나님께서 불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And so God doesn't accept a man's person. God isn't intimidated by man.

for they who seemed to be somewhat in conference (2:6)

you know, those who were taking the authority and speaking the words of power and all.

they added nothing to me (2:6):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헐박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되는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2:6):

야시다시피, 권세를 취하고 능력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2:6):

I wasn't moved by them.

But contrariwise, when they saw that the gospel of the uncircumcision was committed unto me, and the gospel of the circumcision was committed unto Peter; (For he that wrought effectually in Peter to the apostleship of the circumcision, the same was mighty in me toward the Gentiles:) And when James, Cephas, and John [or Peter and John], who seemed to be the pillars (2:7-9),

나는 감명을 못 느꼈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또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2:7-9),

Ahh, oh Paul, I love you, man. “Who seemed to be the pillars,”

perceived the grace that was given unto me, they gave to me and Barnabas the right hands of fellowship; that we should go to the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ion (2:9).

And this is great, this is a real problem that existed in the early church and this is how it was resolved. Recognizing that we each have our ministries but they are different. God has called you to the circumcision, great, go for it, Peter. God has called me to the Gentiles, great, I'll go for it. We're dealing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who need a different emphasis and message.

아아, 오, 바울, 당신을 좋아합니다. “기둥과 같이 여겨집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레 자에게 가게 함이라(2:9)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할레자를 위해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강조점과 다른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I do see the validity of denominations or at least the variety of churches. I do see the validity of the liturgical churches who are ministering to people who can relate to God best in a liturgical setting. I can see the purpose of emotional churches, the Pentecostal churches, for people who have to relate to God in an emotional, hyped sense. And I really rejoice that God is so gracious in reaching man at his different levels. And so God has reached me at my level. God has

reached you at your level. And He seeks to reach every man at whatever level that man is.

나도 교파의 타당성과 적어도 교회의 다양성을 보고 있습니다. 전례의 예배식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의 타당성도 봅니다. 나도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적인 교회인 오순절 교회들의 목적도 볼수있습니다. 다 다른 수준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하나님이기때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수준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If a man's made up on an emotional base and a high pitch thing, God meets him on that level because God loves him. If a man is made up of very sedate, you know, solemn kind of a way, God meets that man at his level. So that we shouldn't put down the liturgical churches nor should we put down the Pentecostal churches. But we should recognize that God is using each to meet men at both ends of the spectrum and also those who are in between in the spectrum because God loves all men and God is no respecter of man's persons. He'll meet each of us at our level.

만약 사람이 감정적인데 기반을 두고 고조된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수준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만약 사람이 매우 조용 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각한(근엄한) 종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례의 예배식 교회들을 업신여겨도 안 되고 오순절 교회들을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우리의 수준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The only problem comes when we say we have the only level or we have the best level. You know, ours is superior to theirs. God loves us more because we relate to God in a better way. No, it's the best way for me to relate to God. But there is, for some people, they could not relate to God as I relate to God. And it's interesting there are some that say, Hey, you're too emotional; and there are others that say, You're not emotional enough. Somewhere I figure I'm relating to God in the middle of the road 'cause if they hit you from both sides, you know you got to be in the middle. They hit you from just one side, you're on the end then, you know. But when they get you from both sides, you're in the middle.

우리는 모두 같은 수준이다 또는 우리가 최고의 수준 이다라고 말할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보다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방법으로 교제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은 너무 감정적이지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너무 감정이 너무 없어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도적인 견지에서 지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을 양쪽에서 공격한다면 중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한쪽에서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반대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쪽에서 여러분을 양쪽에서 공격해오면 여러분은 중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So Paul agreed to disagree. God's called you, Peter, John, James, God's called you guys to the Jews, great. But God has called me to the Gentiles. You can develop your legal relationships with God, we will develop our loving relationships with God through grace. Now Paul puts in his little barb here.

Only they would that we would remember the poor (2:10);

그래서 바울은 반대하는 것에 찬성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율법관계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발전할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작은 선을 여기에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 하였으니(2:10):

In other words, they asked us for help. Now we're going to minister to the Jews but we're needing help so don't forget the poor which, Paul said,

we've always been forward in doing (2:10).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하니 가난한 자 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2:10).

That is, in helping the poor. Paul, you remember, many times took up offerings from the churches to give to the church in Jerusalem to help them in their poverty. So he's sort of interesting.

But when Peter was come to Antioch (2:11),

That is, the place where Paul, that was Paul's really home church in a sense. That's where Paul the base from which Paul went. The base to which Paul returned. That was his home church. "When Peter was come to Antioch,"

다시 말해서, 그는 가난한 자를 도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자를 돕기위해 교회에 전달한것을 기억 하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2:11),

그곳은 바울의 진정한 모교회 였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떠났던 기지였습니다. 기지가 되는 그곳으로 되돌아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란 그의 모교회 였습니다.

I withstood him to the face, because he was at fault. For before certain of the brothers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down, he withdrew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ose which were of the circumcision. And the other Jews dissembled likewise with him; insomuch that even Barnabas was carried away with their dissimulation. But when I saw that they walked not uprightly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Peter in front of them all, If you, being a Jew, were living after the manner of the Gentiles, and not as do the Jews, why are you compelling the Gentiles to live as the Jews (2:11-14)?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 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 들을 두려워 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 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좃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답게 살게 하려 느냐 하였노라(2:14,14).

So Peter showed a vacillation here and of course, Peter was sort of famous for vacillation. He had come down to Antioch and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Now the churches in those days had what they called the Agape feasts. It was sort of what we would call today a potluck. And usually once a week they would all get together for this Agape feast, everyone bringing a dish and then just sharing it all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And then they would finish it with communion service. And it was called the love feast, the Agape feast in the early church. And it served a great purpose because many times the poor people, this was the only decent meal they got all week. Many of the Christians were slaves, undernourished. And this was the only decent meal they had.

그래서 베드로는 우유부단함을 여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좀 우유부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왔어야 했고 그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들이 사랑의 잔치 라고 부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파트락 (potluck)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 한 주에 한번씩 사랑의 잔치에 모두 함께 모입니다. 모두가 한가지씩 음식을 만들어와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찬식으로 그것을 끝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 사랑의 잔치 또는 사랑의 축제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단한 목적을 띤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중에 가진 음식중 가장 훌륭한 음식 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노예로서 영양 부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제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So everybody sharing all of their food, all sitting together and eating together. And so Peter came down and he just sat with them and ate with them. But that's a no-no to a good Jew. For in eating together, you were becoming one with them and thus they were becoming one with the Gentile. And from a Judaistic standpoint, from an Orthodox standpoint, that was bad. But Peter, seeing the love of Christ, realizing, Hey, they're just brothers in the Lord, he just sat down with Gentiles and ate.

그래서 모두가 같이 앉아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려 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량한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관점으로나 정통파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고 그들이 주안에서 형제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Now you remember earlier when Peter had his revelation on the housetop of Simon there in Joppa, and the sheet was let down and all kinds of unclean animals on it, the Lord said, Peter, rise, kill and eat. He said, Oh, not me, Lord,

I've never eaten anything unclean. Jesus said, Don't call that unclean which I have cleansed. It happened three times. And then the Lord said, Behold at the gate there are some men who have come, go with them. Don't ask any questions.

여러분은 전에 베드로가 옹바에 있는 시몬의 지붕에서 계시를 받은 때를 기억하시지요. 하늘이 열리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모든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 된후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와 있으니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And so Peter went down at the gate and here were two men from Caesarea and they said, Our master Cornelius, a Roman centurion, had a vision and in the vision the angel told him to send us down here and to find you and to bring you back up that you might explain to us the way of God in truth. And so Peter went with them and he came to the house of Cornelius in Caesarea.

그래서 베드로는 문으로 내려가 보니 두 사람이 가이사에서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며 우리의 주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을 찾아서 모시고 오라 했고 당신이 우리에게 참하나님의 길을 설명해 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고 그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Cornelius opened the door and said, O praise the Lord, Peter, come on in. And Peter said, Oh-oh, you know it's not lawful for me to enter your house, the house of a Gentile. But he said, God told me don't call that unclean which is cleansed. So I'll come on in, you know. Isn't that what you want to know? And so Cornelius said, Well, I was praying the other day in the afternoon about three o'clock and this angel stood here and told me to just call you and that you would tell us what we needed to know. So the ball's in your court. What do we need to know?

고넬료가 문을 열며 말하기를 오 주님을 찬양 할지어다. 베드로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 오, 내가 이방인인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인 것을 당신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시다 시피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말하기를, 전날

오후 약 세시 경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여기 서서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부르면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And so Peter started sharing with these Gentiles and a group had gathered there at Cornelius' house, group of his friends had come to hear what Peter had to say and as Peter was talking to them, the Holy Spirit fell upon them and Peter was shocked. Now these people are Gentiles. They're receiving gift of the Holy Spirit, what's going on here? And he says, Now notice fellows, I didn't do anything, you know. When we get back to Jerusalem you witness for me. I didn't do it. And he didn't want to take the responsibility and so he had the Jewish witnesses go back to Jerusalem and explain how that he wasn't really responsible. It was something that God did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in trouble. Went into the house of the Gentiles to begin with.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 했습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은 베드로가 해야할 말을 들으려고 왔으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동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때 당신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증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에게 정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설명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작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 간 것부터 었습니다.

Well, Peter, the Lord was beginning to break down some of these barriers. He came to Antioch, saw the beautiful fellowship, the love feast and joined in. But then certain brothers came down from Jerusalem, friends of James, and Peter knew that if they saw him eating with the Gentiles, he'd get reported on. Peter was eating with Gentiles, oh, no! you know, what's happening now? And so Peter pulled away and the next love feast, he sat along with a little group of Jews. Division in the body.

주님께서서는 이 장벽들을 조금 무너뜨리기 시작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아름다운 성도 교제와 사랑의 잔치를 보았고 또 참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친구인 어떤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 왔을때 베드로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을 보고할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니, 아이구, 저런,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물러 나서 사랑의 잔치에서 그의 소수의 유대인 무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교회내에 분열입니다.

And the other Jews who had been eating that the church had been sort of unified, just one in Christ and experience that glorious oneness, but now this division. Peter is a part of it and because it was Peter, other Jews seeing Peter dissemble, they also dissembled and even Barnabas who had been with Paul preaching to the Gentiles, he even got swayed by this and he also changed tables. And that is when Paul stepped in and he rebuked Peter to the face in front of all of them. Said, That's not right, you came down and you began to live as a Gentile, being a Jew. And now, you're trying to compel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And he rebuked him to the face. Now he goes on to say,

그리고 함께 먹은 다른 유대 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대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 그리고 하나가되는 영광스러운 경험했으나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흠어지는 것을보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있다가 마음이 흔들려 다른 상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때 바울이 들어 왔고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견책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내려 와서 이방인 같이 살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방인을 유대인 같이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그의 면전에서 견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We who are Jews by nature, and not sinners of the Gentiles
(2:15),

Now that is, we don't eat pork, we don't eat rabbit, we don't you know eat those foods that the law said were wrong, were sinful to eat, and we are not the sinners of the Gentiles.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2:15),

이제 그건, 우리는 돼지고기나 토끼도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먹으면 죄인이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죄인이 아닙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2:16).

So Paul said, Even we who have kept the law can only be justified through faith. By the works of the law, no one can be justified. Your obedience to the law of God would not save you. Let us say that you could keep the law of God. Written and traditional, oral. It would not save you. This is one of the problems of the Jewish people today. This is exactly what they are trusting in for their salvation, their own imperfect works of the law.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6)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지라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구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수 있다고 말해 봅시다. 그것도 당신을 구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 중의 하나 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고 있는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율법의 행위입니다.

Yom Kippur is no longer a day of sacrifice for sins. It is a day of reflection for the Jew as he reflects upon his good works seeking to be justified by his works before God. But Paul said,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Justification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But if, while we seek to be justified by Christ, we ourselves are also found to be sinners, is therefore Christ the minister of sin? God forbid. For if I build again the things which I destroyed, I make myself a transgressor (2:17-18).

속죄일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희생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선한 일로 의롭게 되려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회상하는 회상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2:17-18)

So Paul is talking here about his newfound faith and revelation that is justification, being accepted by God, was based upon his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he despaired of the works of the law seeking now that righteousness which is of faith through Christ. No longer following the traditions of the law. Eating if he so desired a ham sandwich. And he goes on to say, If I try to build again a relationship through the law, that which I destroyed when I came to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n I would become a transgressor. For through the law,

For I through the law am dead to the law, that I might live unto God (2:19).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의 새롭게 찾은 믿음 과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도는것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행위로 절망했으나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의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그가 햄 샌드 위치가 먹고 싶다면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하기를 만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헐었던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법자가 될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2:19).

In other words, the law condemned me to death. And that's all the law has done for anybody. It condemns them to death because no one has kept the law. And the Bible says, "If you keep the whole law, and yet you violate in one point, you're guilty of all" (James 2:10). Again the Bible says, "Cursed is the man who continueth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therein" (Galatians 3:10). So if you're trying to be justified by the law and you've missed in one point at one time, anytime in your life, you're under the curse of the law which is death. So Paul said the law killed me and I'm dead to the law. But I am alive unto God.

For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but yet it is not I (2:20),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것은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행한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야고보서 2:10). 다시 성경이 말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려고 시도 하다가 당신 생애의 어떤 순간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음이라는 율법의 저주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나를 죽였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노라 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I'm living now a new life. My old life was predicated upon the works of the law. My old life was self-centered. My old life was filled with strife, envy, jealousy, factious spirit. No longer I. What a glorious day when our life is no longer I. No longer centered around self. But now a new center and that is Jesus Christ for my life. No longer I upon the throne. But now Jesus Christ enthroned in my heart. No longer seeking to please me, now seeking to please Jesus Christ.

The life that I now live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2:20).

지금은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입각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자기중심주의 였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당쟁을 일삼는 마음으로 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사람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아닐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좌에 앉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 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2:20).

And so I am not the old man that I was. That man died. He was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a new life. A new center for life. The old self-centered Chuck died, crucified with Christ. Now the God-centered Chuck lives. “Lives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that I might have this new Christ-centered life. That I might have this new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might have spiritual life. Paul said,

I do not frustrat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2:21).

그래서 나는 과거의 그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새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삶입니다. 그 옛 자기중심 이었던 척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척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될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며 나는 영적인 삶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바울 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2:21).

You remember when Jesus wa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night before the crucifixion, Jesus knelt and prayed,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Matthew 26:39). What’s He talking about? If what is possible? If the redemption of man, if salvation for man is possible by any other means, by any other agency, by any other action, let this cup pass from me. If it’s possible that man could be redeemed by the law, then Jesus would not have died. God would have established the requirements and maybe one or two might have gotten in somewhere along the line if they had died soon enough.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신 것을 기억하실줄로 압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만약 무엇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만약 사람의 구원, 사람의 구속이 다른 방법에 의해, 다른 어떤 매개체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조건을 성립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나 둘쯤은 어느 정도에서 도달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맞은 시기에 죽었더라면 말입니다.

The cross of Jesus Christ declares to all men for all tim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man can be redeemed and hope to see the kingdom of God. For had God been able to accomplish man’s salvation through any other series of works, through the establishing of certain rules and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and all, had God been able to redeem man by any other way, I am certain He would have answered the prayer of Jesus.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항상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속적인 일이나 어떤 법과 규율과 요구조건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수 있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제하실수 있었다면, **“아버지,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And the fact that Jesus went ahead and suffered at the hands of man and was crucified by man is the declaration of God to all of us that there is not a possibility for salvation through works,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through the efforts of man. And as Paul said, “I am not frustrating the grace of God: because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died in vain. His death was not necessary. But righteousness cannot come to you by the law.

예수님께서서는 앞서 가셔서 사람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선행로나 율법 의 행위로나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2:21)**.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Righteousness cannot come to you by keeping rules and regulations. I cannot give to you a standard for righteousness and saying. Now if you do this and do this and do this and do this, you will be righteous. Unfortunately, many churches have endeavored to do this. They have their standards of holiness and they tell the women what kind of apparel is righteous and what kind is unrighteous. They tell what kind of jewelry you can wear and what kind you can't wear. They tell you how you can fix your hair the righteous way and the unrighteous way. Interesting they don't say too much about men who'd dress extremely flashy as a general rule within their groupings. But they really have a lot to say to the women. Of course, the men cannot wear gold. And they are trying and they really believe that they are being more righteous.

규칙이나 규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기준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 들이 이것을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으며 그들은 여성에게 어떠한 옷을 입으면 의롭고 어떤 옷을 입으면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떤 보석은 달 수 있고 어떤 보석은 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머리를 하면 의롭고 또는 안 의로운 길인지도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모임 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 빼어나게 번쩍 이게 입은 남자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하여는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남자는 금으로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하면 더 의로워 진다고 믿습니다.

They look upon me and they say, Oh, look at that, you see that he has a gold watch on, and a gold ring. Oh-ho-ho, my, shameful, that man's, you know, how can he be a minister, how can he claim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ars a gold ring. Terrible. And they stand in judgment of me because I wear a gold ring.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아하, 저것 좀봐, 그 사람이 금시계를 찾고 금반지를 낀것을 봐. 아 -하, 챔피언하다. 저 사람이 한것 좀봐. 어떻게 그 사람을 목사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 할 수 있단 말인가? 금반지를 끼다니, 형편없어. 그들은 서서 내가 금반지를 끼었다고 나를 판단합니다.

Now if I take this ring off and I suddenly become righteous because I've taken my ring off and my watch off, now I'm standing here, I'm very righteous, you see. You ladies can become righteous by just washing your face. I mean, you know, according to their standards. If you wear make-up, that's unrighteous. No make-up, that's righteous.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반지를 빼고 시계를 벗어면 나는 갑자기 의로워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지와 시계를 빼고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매우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성도 들은 그냥 얼굴만 씻어도 의로워 질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저들의 기준에 의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장을 했다면 그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하면 그건 의로운 것입니다.

And so they set out these standards and thus I say, He-hey, I don't wear my gold ring anymore, I don't wear my gold watch and I had the dentist pull out my gold teeth and I'm very righteous now. No, that doesn't make me any more righteous nor does the wearing of it make me any less righteous.

그래서 그들은 이 기준을 만들었고 내가 말하기를, 어이, 난 금 반지를 더 이상 안 겁니다. 내 금시계도 안 끼고 치과의사한테 내 금 이빨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대단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더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그것들을 낀다고 해서 나를 덜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Righteousness is not a thing of wearing gold or not wearing gold, of eating meat or not eating meat, of eating ham or not eating ham. Righteousness is something that God had imputed to my account through grace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And God looks at me and He sees me in Christ. And He sees me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nd because He sees me only in Christ, and that is my standing before God, it is, I stand before God in Christ Jesus. So He really looks not at me but He looks at Christ Jesus and He says, Hmm, that Chuck is a righteous man. I'd say, Thanks, Jesus. I appreciate that. I love your grace, O Lord. For it is through the grace of God that I have been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의로움은 금을 끼고 안 끼고 에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며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나를 보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쳐다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흐음, 저 착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 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좋아합니다 오, 주님” 이라고 할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Now had I not been able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I was trying, believe me, and I was very self-righteous. I was very self-righteous because I had never been to a show in all of my life. I had never been to a, Well, I did go to one dance and that was terrible. I lived in guilt for years after that thing. Oh what a terrible. Problem was I enjoyed it and that was, oh, that was terrible. I was really guilty. But I never smoked. I had never taken a drink. And so I felt very, very righteous except for that one dance.

나는 열심히 노력 했으며 스스로 매우 의롭다고 여겼지만 나는 의롭다고 인정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전혀 연극이나 영화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번 춤추러 간 적이 있는데 곤혹스러웠으며

그 외에는 전혀 구경이라곤 간적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 몇 년 동안 가책 속에 살았습니다. 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즐겼는데 바로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담배는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은 그 단 한 번의 춤추러 간것만 빼고는 매우 의롭게 살았습니다.

Now I still never smoke. I still never drank but that doesn't make me righteous and I don't look upon that. I'm not really smug and self-righteous over that. So what? That's not what makes me righteous. God accounts me righteous because I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basis of my standing before God. That's what Paul came to. He had tried the righteous act. He had tried the righteousness by the law. He had followed it as far as anybody could follow it. But when he came to the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gladly turned to the new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지금도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술을 마셔 본적이 없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것은 아니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따를수 있는 처대한의 노력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달았을 때에 그는 기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로 돌아섰습니다.

And so he now defends the Gentile believers in the face of all of the pressure from that leadership in Jerusalem and tells them, Stand fast in the liberty wherein Christ has set you free. Don't let men entangle you again in the bondage of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Just enjoy your loving relationship with Him.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방인 신도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 하게 하였으니 그 자유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다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로 얽어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십시오.

God loves me, that's what counts. God has forgiven my sins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That's what counts. God accounts me righteous tonight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not because of what I do or don't do but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God has accounted me righteous. The righteousness whereby I stand before God is complete. I can't add anything to it. And my endeavor to add anything to it only takes away from it because it then has me looking back at myself instead of looking at Jesus. And each time I look at myself I get in trouble. When I keep my eyes on Jesus I do alright. Keep your eyes on Him. Enjoy the grace of God. And that righteous standing that God has given to you through faith.

하나님은 나를 사랑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수 있는 그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더 보탤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는 나의 노력은 오직 거기서 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때마다 문제 안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눈을 예수님께 맞추면 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그 지속적인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십시오.

Father, we thank You tonight for this glorious gospel that we have received, the gospel of the grace of Jesus Christ. Thank You, Father, for revealing this to Paul and for Paul's steadfast faithfulness in passing it on to us. That we, Lord, of the Gentiles might have this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having been forgiven all of our sins, having been accounted righteous through our faith in Jesus. Bless us now, help us now.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 합니다. 아버지,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내려준 바울의 굳건한 신실함을 인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Chapter 3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Galatians chapter three. Background: Paul the apostle had been in the area of Galatia. Galatia was a general area like a county or a state. It was not a city. There were many churches established there. After Paul's departure, other teachers came in declaring that the people could not be saved by a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but must also to that faith add the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rituals of the law of circumcision. And many of the people in those churches that were brought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Paul's preaching were taken in by these other teachers that followed Paul, and so a division developed among the brethren there in that area.

갈라디아서 3 장을 다 같이 펴까요.

배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보통 주나 도와 같은 곳이었지만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다른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믿음에 율법의 순종과 할례법의 의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랐던 그곳 여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선생들에게 속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These false teachers that had come in had spoken against Paul's authority as an apostle. And they were actually advocating the necessity of proselytizing into Judaism in order to be saved. Keeping of the law and a righteousness which is predicated upon following or observing these particular rules. So, Paul at the end of chapter two said, "I do not frustrat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come by the law, then Christ is dead in vain" (Galatians 2:21). Great powerful words, but very true words.

그곳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 필요성을 주장 하였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러한 규칙을 따르거나 지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1). 굉장히 힘 있는 발언이지만 대단히 진실된 발언입니다.

You see, if I could become righteous by keeping a set of rules, then Jesus would not have to die. The fact that Jesus did die declares that no man can be righteous by his own effort or by his own works. God has established a basis for righteousness, but it is not upon works; it's not upon obedience to the law, but it is upon our faith in Jesus Christ. So Paul then opens chapter three,

만약 내가 어떤 판에 박힌 법을 지켜서 의로워 질수 있다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셨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한 기초를 설정하셨으나 선행이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O foolish Galatians, who hath bewitched you, that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before whose eyes Jesus Christ hath been evidently set forth, crucified among you? This only would I learn of you, Received y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Are ye so foolish? having begun in the Spirit, are ye now made perfect by the flesh? (3:1-3)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1-3)

So, Paul takes them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ir salvation, when they first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were accounted righteous before God, before they had done any works at all, God accounted them righteous. Now someone has come along and said, "If you want to really be righteous, then you can't be doing that. If you want to really be righteous, then you've got to be doing this." And they started establishing sort of rules for righteousness, which we are so often prone to do. Now, if you will read ten chapters of the Bible every day, and read a morning devotional, and spend a half hour in prayer, surely you will be much more righteous than the person who doesn't do those things. You see, we're prone to put on that kind of a addition to a person's faith.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받은 그들의 구원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선행도 행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워 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의로워 지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의로워 지기 위한 규칙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열장씩 읽고 그리고 아침 명상의 글을 읽고 반 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다 분명히 훨씬 더 의롭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그런것들을 덧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can be justified” in the eyes of God (Galatians 2:16). If we could become righteous by obeying the law, any law, any set of rules, then Christ is dead in vain. And so the Galatians were taken in. They were bewitched by the teaching. It sounded so reasonable. But Paul then said,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Now it’s a rhetorical question, because the obvious answer is that they received the Spirit by faith. Now, this epistle to the Galatians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it seems, even to the present time, a great tendency to turn towards works as a basis of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s always a dangerous basis for you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our works are not always approved, even by ourselves.

하나님의 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만약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거나 규칙을 지키므로 의롭게 될수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 들은 속았고 그들은 가르침에 매혹되었습니다. 듣기에 매우 합당합니다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명백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을 행위에 돌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위험한 기반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심지어 우리 자신들에게도 받아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a Pentecostal church, desiring rightfully that fullness of God’s Holy Spirit upon my life, I spent many a night in what they called tarrying meetings, as I was tarrying for what they calle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Now, in those churches where I grew up, there were oftentimes what they called testimony meetings. And quite often in the evening, “Anybody have a testimony tonight for the Lord?” And usually there was a certain portion of the meetings set aside for these personal testimonials, and people would get up and testify of God’s goodness and God’s grace and God’s blessings and of problems, many times and all.

내가 오순절 교회에서 자랄때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했으며 성령침례라고 불리우는 것을 받으려고 늦게 모이는 모임에서 밤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임을 번번히 간증집회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에 빈번히 “오늘 저녁 주님을 위해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이 모임에서는 개인 간증을 위한 시간을 항상 남겨 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문제점들을 간증 합니다.

But much of my theology was formed from these testimony meetings, and that's why my theology was so mixed up. Because I heard people testify of their receiving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I was longing to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I would hear people say things like, "When I finally took out my cigarettes and laid them down and said, 'God, I'll never smoke again,' then God baptized me with the Holy Spirit." Well, unfortunately, I didn't smoke, or fortunately, so I couldn't lay my cigarettes down.

그러나 이러한 간증 집회로 부터 많은 나의 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의 신학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성령 침례 받은 것을 간증하는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기를 아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담배를 꺼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다시는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다행히도 담배를 꺼내어 내려놓을수가 없었습니다.

And there was, though not perhaps declared, there was the subtle innuendo tha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somehow came as a reward when you reached a certain degree of consecration or holiness. So that I was actually seeking to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by keeping the rules, because I had to sign every year a pledge: I won't go to shows, I won't go to dances, I won't smoke, I won't drink, and these. And I would sign the pledge every year. And every year after I'd signed the pledge, I'd immediately try and receive the Holy Spirit 'cause I just signed the pledge. "Lord, look, I'm going to be good." And I wrestled with this, because I could not understand why I tarried so many years and God never filled me with the Spirit.

비록 선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거룩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상급으로 성령 침례를 받게된다는 암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율법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성령받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약에 서명을 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서약은: 구경을 가지 않고, 춤추러 가지 않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마신 다거나 그런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서약을 매년 서명하며 서명한 후에는 내가 서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당장 시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보세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When I finally received that empowering of the Spirit in my life was when, by faith, one day I just said, "Well, Lord, I'm going to receive it." And I had set aside my concept of my righteousness or my holiness because I didn't smoke and drink. Because I had a real problem, because a friend of mine who did smoke received, and I didn't think God was quite fair. I knew I was far more righteous than he was. And so, when I, by faith...and when I received that empowering of the Spirit, I did so by faith.

드디어 어느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나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다 제쳐 놓았습니다. 내 친구 중의 한사람은 담배를 피웠는데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Paul's question,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by the hearing of faith, or by the works of the law?" The answer is obviously: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by faith; it's God's gift. You can't deserve it. You can't be worthy of it. And that was the whole context behind the tarrying; it was a cleansing process where you'll become worthy. My body worthy to b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Never, no way. I received the Spirit by the hearing of faith.

바울이 질문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은 명백하게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의 배후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될때까지의 과정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될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듣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Now the next question: "Foolish Galatians, having begun in the Spirit." That's where you start with...you started out in the Spirit, now are you going to be made perfect in your flesh? Are you going to improve upon God's work in your life? And how many times we're trying to improve on our righteousness by works, by obedience, by promising to God, making covenants with God. Promising, "Now, God, I promise this next week I am going to faithfully pray one hour everyday. I promise You, Lord, I'm going to. Now, Lord, on the basis of that promise, I want You to bless me. You know, because after all, I'm going to be so righteous by the end of the week having prayed an hour every day." And having begun in the Spirit, we so often are seeking to be made perfect in the flesh, by our fleshly efforts. Paul is rebuking the Galatians for this false concept.

이제 다음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것이 여러분이 시작한 곳이며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이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에게 약속함으로 언약을 맺어 우리의 의를 개선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매일 한 시간씩 성실하게 기도 하겠습니다. 약속 합니다, 주님.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주님, 이 약속을 기초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 시피, 주말쯤이면 제가 매일 한 시간씩 기도를 함으로 제가 매우 의로워 질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빈번히 육체적인 노력으로 완성하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개념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중 합니다.

Have ye suffered [he said] so many things in vain? if it be yet in vain. He therefore that ministereth to you the Spirit, and worketh miracles among you, doeth he 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of faith? (3:4-5)

Again, this creates some problems many times, because there are those that are going around with what they call miracle ministries. And you know, they advertise, "Come and see miracles." And, "Miracles every Monday night," you know. As though God were limited to, you know, "Why, I came Sunday night." "No, no, no, this isn't miracle night yet, come back tomorrow night for the miracles."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3:4-5)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회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이리 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고하기를 “와서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엔 기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난 주일 저녁에 왔어.” “아니요, 아냐, 이 날은 기적의 밤이 아닙니다. 내일 저녁 기적의 밤에 다시 오십시오.”

Now it has created a problem, because many of these miracle evangelists have deep personal problems. Yet they stand up before a great number of people, and there seems to be miracles wrought through their ministry. There was a fellow, A.A. Allen. He even opened Miracle Valley Ranch in Arizona. A.A. Allen was an alcoholic. He died of acute alcoholism in San Francisco. And yet, he'd get up before the people, and there were miracles that people would testify to as the result of his prayers and the result of his services. Now, you see, that seems totally inconsistent to us. A person to have that kind of power with God, surely you would think he lived a

very dedicated, consecrated, holy, righteous life. That this was God's attestation to the person's holiness or righteousness. Not so.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많은 기적의 전도자 들이 깊은 개인 문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것 같이 보입니다. 에이 에이 알렌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리조나에 기적의 골짜기라는 목장까지 났습니다. 그는 샌 프란시스코에서 죽었는데 급성알코홀 중독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간증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기도의 결과요 또한 그의 집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대단히 헌신적이며 성결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 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 곧 사람들에게 거룩함, 또는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Those that worked miracles do not do it on the basis of their righteousness, and this stumbles a lot of people when they get close to some of these persons that are going around in these miracle meetings, to see the inconsistency of their walk. Stumbles many people, because somehow, we think that this is related to holiness and to righteousness and to the obedience of a fine line of commitment to God.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의를 기반으로해서 그런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모임을 두루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의 행함의 모순을 볼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특별한 순종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You see, God does not reward us for our works, for our efforts, for our goodness. Whatever God gives to me, He gives to me on the basis of my believing in His grace. And these men have learned to believe in the grace of God. Not really looking at their own selves, weaknesses, failures or whatever, and they have learned how to inspire people to look to God through faith. And God honors the faith of the people who have come to receive from God.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 상 주 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던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에 기초를 두고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자신이나 약점이나 실수한 점과 같은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영감을 〇부러 넣어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터 믿음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Any work that God has done in my life comes to me by believing, faith in Jesus Christ and in the grace of God. Now, when you can really assimilate that truth,

then you can start to expect God to bless you, though you know that you don't deserve the blessings, because I'm not coming on what I deserve. If I got what I deserved, man, I'd be frying by now. He has not rewarde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but "as high as the heaven is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y towards them that fear Him" (Psalm 103:11).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였을 땐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것을 알찌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시작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온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온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다면 지금 쯤엔 안전히 튀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행위대로 상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시편 103:11)**

So I stand in the grace of God. I walk in the grace of God. Now, does that mean then that I can just go out, and you know, live any kind of an old lascivious life? No, no, no, no, no.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to walk a life that is pleasing, and when I use that as the criteria for my activities, I find that I live a more strict life than when I try and use right and wrong as the basis for my particular activity. Is this right to do? Is this wrong to do? I so often hear that question. That should not be the consideration. The consideration should always be, "Is this pleasing to God if I do it?"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합니다. 이제, 그 뜻이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떤 종류의 음란한 생활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삶을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활동의 범주로 삼을 때, 특정된 활동을 위한 기초를 세워 옳고 그른것을 시도하고 사용할때 보다 더 엄격한 생활을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은 항상 “만약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이어야 합니다.

You see, a lot of people say, “Well,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Ooo, but it doesn't please God. So, as I am living to please God, yet I do not look at myself or my imperfections as the basis for my receiving from God. Or, if I happen to have a good day and have been especially benevolent and have done, you know, some extra good deeds, I don't look to those as the basis of my receiving from God. I don't say, “Well, God, did you see that? Did you observe? Lord, didn't I handle that well? Now don't you think, Lord, I deserve a little special credit for that one, you know? Can't You do this for me? Because look what I just did for You.” No, God does not

reward me for good efforts, or even good performance. God blesses me because He loves me. And He loves for me to just trust in Him. And He loves it when I seek to please Him. But even that is not the basis for what God gives to me. The basis is God's love and grace for me. He bestows upon me His blessings, His love, as I simply believe in Him to do it and trust Him to do it.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오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은 위한 기초로 나 자신을 보거나 나의 불완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좋은 날을 가졌고 특별히 자선 행위와 선행을 더 많이 했다면 나는 그 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저것 보셨습니까? 관찰하셨어요? 주님, 제가 잘 처리하지 않았나요? 주님, 저것으로 인해 여분의 점수를 땀쥘? 저를 위해 이것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 좀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훌륭한 노력이나 좋은 성과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그의 은혜입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Now, if you are coming to God on the basis of your righteousness, then you're going to be cut short of what God wants to do in your life. You're going to be robbing yourself of many rich blessings that God wants to bestow. But if you come always on the basis of God's love and grace for you, then you'll never be cut short. As I am believing and trusting God to bless my life, even though I know I do not deserve it.

이제 만약 여러분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단축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시는 많은 부요한 축복을 당신 자신이 도적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온다면, 그것이 결코 단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 해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As Jacob said, “Lord, I am not worthy the least of thy mercies” (Genesis 32:10). It isn't my worthiness that counts. Jacob was a scoundrel, and yet God blessed him abundantly, and he knew it. He was a deceiver. He was a conniver. He was a manipulator. And when he looked at God's blessings, “O Lord, I'm not worthy the least of Your mercies, yet you have blessed me.”

So, he now enters into this principle coming back to Abraham.

Even a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3:6).

야곱이 말 했던 것 같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창 32:10). 그것은 나의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이는 자며 그는 모사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험잡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을 때, “오, 주여,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된 이 원칙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6).

What? His believing God. Now, it is true that his belief in God was manifested by his obedience to God. It isn't just saying, "Well, I believe in the Lord. I believe in Jesus." It's more than just a verbal assent to the truth. If I indeed believe, my belief will be demonstrated by my actions. If I stood here tonight before you and said, "Friends, I believe there's going to be a violent earthquake in ten minutes that's going to level this building. God's revealed to me that the San Andreas fault line is about ready to, you know, to let go. In fact, in just now, it's actually only nine minutes and forty seconds. This thing is just going to be flattened." And I just went on talking and all, you can say, "He really doesn't believe that." Why? Because my ac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what I am saying. You see, if I really believed that, I'd say, "Hey, let's get out of here. You know, get out there under the trees or get out there in the yard, because, you know, these buildings are going to be flat. And go get your kids, get them out of the buildings quick! You know, and let's get moving."

뭐라구요?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흠, 나는 주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동의 하는것 이상입니다. 만약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밤에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내가 믿기는 십분 안에 굉장히 심한 지진이 일어나 이 건물을 납작 하게 될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썬안드레아스의 지진대가 곧 시작 될 것 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곧, 이제 막 구분 그리고 사십초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납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그것을 믿지 않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이 일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말하기를 “여보세요, 여기서 빨리 나갑시다. 저 나무 밑이나 마당으로 나갑시다! 이 빌딩이 납작하게 돌거니깐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러 빨리 이 빌딩에서 나가세요! 자, 움직이세요.”

Now, if a person just says, "Hey, I believe in Jesus. Yeah, I believe." And yet their actions are not in conformity with what they are declaring, then there is a great reason to doubt whether or not they sincerely or really believe it. If I sincerely really believe something, then my actions are going to be conformed with and confirming that which I believe.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네, 믿지요.” 그러면서 아직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선언 한 것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 없이 또는 진실로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를 의심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는다면 나의 행동들은 내가 믿는 것과 일치 되며 그럼으로 내가 믿는 것을 확인해 줄것입니다.

So, Abraham’s actions confirmed what he believed. His actions were on the basis on what he believe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the belief that God accounted for righteousness, not the actions, but the belief that prompted the actions. As James said,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26). “You say you believe? Well, you show me your works and I’ll show you your faith.” In other words, James is pointing out that just verbal assent to truth is not enough. It has to be demonstrated by your action if it is a true faith, if it is a true belief. But God doesn’t look to the actions, but He looks to the faith which prompts the actions. With Abraham, it was Abraham’s faith that God accounted for righteousness.

Know ye therefore that they which are of faith, the sam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3:7).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가 믿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믿는 것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를 촉진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혹이 말하기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말로만 진리에 찬성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행위를 촉진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 (3:7)

So, Abraham was the father, not of a physical race, but of a spiritual race. The promises to Abraham were not to the physical seed, but to the spiritual seed. So that Paul will soon point out that we as children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those that believe, and by your believing, you then become a child of Abraham through

faith. And thus,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become God's covenant with you, as you become a child of Abraham, the father of those who believe. So, you may be a physical descendant of Abraham, but if you don't believe, you're not really a descendant of Abraham in that spiritual sense.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닌 영적 자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드신 언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볼때, 여러분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heathen [or the Gentiles] through faith, preached before the gospel unto Abraham, saying, In thee shall all nations be blessed. So then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3:8-9).

The promise of God to Abraham, foreseeing that the Gentiles were going to be justified through faith, promised him this blessing of which you become partaker.

Now, those who were ready to go back to the law, those that were ready to look to the law as the basis for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Paul said, "Don't you realize that,"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the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continueth not in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do them (3:10).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8-9)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예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에 참여 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에 기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3:10)

Heavy duty. You want to be made righteous before God by your keeping the law? Then you've got to keep the whole law all the time, and if you ever violate it once in any area, you've had it. You're under the curse. For "cursed is the man that continueth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therein."

무거운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여러분은 저주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James said that "if we keep the whole law, and yet violate in one point, we are guilty of all" (James 2:10). Now,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ich point you violated, if you violate any point of the law, you're guilty of the whole. If you want to be righteous before God by your works, then you've got to be perfect. And if you're not perfect, you better listen then to the gospel of grace through faith, because you need it. So this is for imperfect people. The rest of you can go home at that point.

But that no man is justified by the law in the sight of God, it is evident: for [the Bible say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3:11).

야고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어겼다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어떤 것이든 그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완전치 못할 때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3:11)

This scripture was given by God to the troubled prophet Habakkuk who was complaining to God at a time of national declension. The nation was going downhill fast. All kinds of corruption in government. And Habakkuk saw the corruption that was there. He has insight into the problem and he said, "God, please do me a favor. Don't let me see anything else; I can't take it. The whole system is going down the tubes and you're not doing a thing about it." God said, "Habakkuk, I am doing a work, and if I told you what I was doing, you wouldn't believe me." So Habakkuk said, "Well, try me." And God said, "I am preparing Babylon, and I am going to bring Babylon as my instrument to judge these people for their iniquity." "Wait a minute, Lord, that isn't fair. We're bad, yes, but hey, they're horrible. They're much worse

than we. Why would you use a nation that is even more evil to punish us?" God said, "I told you you wouldn't believe it." So Habakkuk said, "Well, Lord, I don't know what to do. I'm just going to go sit in the tower, and I'm just going to wait on You and see what You're going to do."

이 말씀은 나라가 기울어질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괴로워하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매우 빨리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는 여러 가지의 부정 부패가 있었고 하박국은 거기서 모든 부패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상 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박국, 내가 일을 하고 있단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게 말하면 네가 믿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저를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나는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들의 패역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빌론을 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 불러올것이다.” “잠깐만요, 주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나쁜긴 하지만 그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훨씬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니. 네가 그걸 믿지 않을 것 이라고.”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그럼, 주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탑에 올라가 그냥 앉아 있으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So, he went into the tower to just sit there and wait on God. And while he was sitting there,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abakkuk the prophet saying, "Habakkuk,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Believe me. Just trust in me. Things are going to get tough, Habakkuk. The nation's going to go into captivity, you know, but believe Me, trust in Me,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래서 그는 탑 안으로 들어가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 있을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으라. 그냥 나만 신뢰하여라. 하박국, 모든 일들이 어려워 질것이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 갈것이지만 나를 믿고 신뢰하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o, Paul here again quotes this fantastic statement of God: the just, or those that are justified will be justified by faith. That is why the law cannot justify you. It cannot make you righteous.

And the law is not of faith (3:12):

The law is of works. The law says,

but, The man that doeth them shall live in them (3:12).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다시 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의인, 또는 의롭게 되는자는 믿음으로 의롭게될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수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3:12)

율법은 행함이라. 율법이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3:12)

But the law places the emphasis upon the doing, the obedience, where faith places the emphasis upon trusting in God. So then, as many as are under the law are under the curse of the law, unless they keep the entire law. But,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ing made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hangeth on a tree (3:13):

율법은 행함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3:13).

So Jesus, hanging upon the tree, upon the cross, became a curse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Again, here we have a glorious insight into God's grace towards us in Christ. For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know the riches of God" (2 Corinthians 8:9). I mean, that's quite a deal. Here He was so rich, yet for your sake He emptied Himself. He became poor, that through His poverty you might know the riches of God's love and grace.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또 한번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8:9) 우리에게 그건 굉장한 수지많은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 그는 매우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For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Many times when we go down to baptize in the ocean, the water is rather cold. And when people are immersed in that cold water, sometimes it sort of takes their breath away. And as they come up, you can see them sort of gasping because of the coldness, you know, just haah, you know, trying to catch composure again. It’s a shock when your body is warm to suddenly be immersed in cold water. It’s a shock to your body.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21). 여러 번 세례식 하려고 바닷가로 내려갈 때 물이 좀 차갑습니다. 그 찬물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면 어떤 때에는 그 차가움이 그들의 숨을 잠시 앓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나오면 그들이 추워서 숨을 가쁘게 쉬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이걸 평정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몸이 따뜻할 때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마비된 것 같아 지지요. 이걸 여러분의 몸에 충격입니다.

I wonder what kind of a shock it must have been to Jesus who was so pure, so totally pure, to all of a sudden have dumped on Him the sins of the world. Every rotten, evil thing that has ever been committed by man. Every perverted thing ever committed by man dumped on Him. What a shock that must have been. But yet,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Him” (2 Corinthians 5:21). So, He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cause He became a curse for us through hanging there on the cross.

나는 정결하고 온전히 깨끗하신 예수님에게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죄를 쏟아 부었을 때 어떠한 충격을 받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죄는 사람들이 범한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한 악한 죄를 그에게 다 쏟아 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린도후서 5:21).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3:14).

So Jesus came to redeem, taking our curse. But again, that’s negative. Positive: that you might receive th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to Abraham,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Brethren, I speak after the manner of men; Though it be but man's covenant, yet if it be confirmed, no man [can] disannulleth [it], or addeth thereto [to it] (3:1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3:14)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나 그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그러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3:15).

Now, God made the covenant with Abraham, a blessing.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Genesis 22:17). God made the promise of His blessing upon Abraham's children. You are th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faith, for he is the father of those that believe. And so, God's promises to you are, "In blessing I will bless you and multiply you." God's promised His blessing upon you through faith. Jesus opened the door that you might receive these blessings that God promised upon Abraham. And by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enter into this covenant.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창세기 22: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라고 약속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Now, a covenant, though God made it with man, once God confirmed that covenant, no man can take away from that covenant or no man can add to that covenant. And so,

Now to Abraham and to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saith not,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thy seed, which is Christ (3:16).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한번 확정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이 언약으로부터 뺄 수도 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3.:16)

And so when God said, "And through thy seed all of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He wasn't saying that the world is going to be blessed through the Jewish nation. He was saying the world would be blessed through Jesus Christ. Thy seed, singular. It was a reference to Jesus Christ and the work of redemption that He would accomplish for man, through which the blessings of God might come upon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And the Jews so often misinterpret that promise to Abraham thinking that they are to be the benefactors of the blessings to the world. Not so. It is through the seed, singular, Jesus Christ, that these blessings were to come to the Gentiles and to all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께서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유대민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 하셨던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는 단수입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가 인간을 위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 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주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잘못 해석하여 세상이 받을 축복의 수혜자가 유대 백성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씨를 통하여, 홀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And this I say (3:17),

Remember, if God has made a covenant, no one can add to it or take away from it. “And this I say,”

that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later, cannot disannul, that it should make the promise of none effect (3:17).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3:17),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 하셨다면 그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3:17).

So, the law came along and pronounced upon man a curse. “Cursed is everyone that continues not in the whole law to d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The

law came along and condemned man to death. But God has promised the blessing. And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And His blessing upon Abraham’s seed, those who would believe. That is, upon his descendants, or those that would follow him in faith. So the law cannot really take away those blessings that God has promised to you, or your failure and obedience to the law cannot destroy or disannul the covenant that God made to bless you.

그래서 율법이 와서 사람에게 저주를 선고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이 와서 사람을 죽음으로 정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또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주신다는 그 언약을 파괴하거나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Now God help us to see this, because it’s going to cause your life to become so rich and filled with God’s blessing you won’t be able to handle it. My life has become so blessed of God, having been brought by the Spiri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s of God’s blessings upon me are all in God, in His grace, in His love for me, and are not dependent upon my works. But they are just predicated upon: God has made a covenant to bless me. God confirmed that covenant, and the law cannot disannul it. My failure cannot disannul it. As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come a son of Abraham through faith, and thus, this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s children becomes God’s covenant with me, and God’s covenant was that of total blessings.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부요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하는 원인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하나님안에 있는 것이며 그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나의 선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를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증 하셨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할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가 언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때 음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Now, the law can’t take that away from me. Though the law was added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later, once the covenant is confirmed, it cannot be added

to or disannulled. It cannot disannul God's covenant of blessing with me because I have failed to keep that law.

Wherefore then serveth the law? (3:19)

이제, 율법이 그 축복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율법이 사백삼십 년 후에 더해 졌지만 한번 그 언약이 확증되면 거기에 더하거나 취소 할수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수 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즉 율법이 무엇이냐?(3:19)

And, of course, it's the opposite. Then why did God give the law? If the inheritance is of the law, it is no more of promise. But God gave it to Abraham by promise. Then why did God give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till the seed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was made; and it was ordained by angels in the hand of a mediator (3:19).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 반대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만약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3:19)

So, the law served because of man's transgressions, to show man his guilt and his need of a Savior.

Now a mediator is not a mediator of one, but God is one (3:20).

It takes two to have a mediation. Takes two to tango. Two to have a fight. Takes two to have a mediation. Then, so Christ is becom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Is the law then against the promises of God? [No] God forbid: for if there had been a law given which could have given life, verily righteousness should have been by the law. But the Scripture hath concluded all under sin, that the promise by faith of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em that believe. But before faith came, we were kept under the law, shut up unto the faith (3:21-23)

그래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율법이 생겼고 사람에게 그의 가책과 그의 구원자의 필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3:20).

중재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 합니다. 탕고 춤을 추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며 싸우는데도 둘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21-23).

“But before faith came,” rather. Before Jesus Christ came, the relationship to God had to be by the law. That’s how man related to God. He had to bring the sacrifice; he had to make the covering for his sin. But once Jesus came, we no longer needed the law.

Wherefore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unto Christ
(3:24),

Or unto the time of the coming of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3:24).

“**믿음이 오기 전에**”란 차라리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시기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3:24)

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3:24)

The law can only show me how far I have failed to be what God would require me to be. It’s the schoolmaster. Man was once under the law unto the time of Christ.

But after that faith is come [Jesus Christ came], we are no longer under a schoolmaster (3:25).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몽학 선생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3:25).

Paul said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that believe. That is, the law as the basis for my relationship with God.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 longer based upon my keeping the law.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w based upon my faith in Jesus Christ.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For as many of you as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And if ye be Christ's, then are y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3:26-29).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을 둡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26-29)

And so, Jesus has become the common denominator among men. So that we all relate to God on an equal basis through Jesus Christ. I have just as ready an access to God through Jesus Christ as does Billy Graham or the Pope or anybody else, because they have to come the same way. I have to come through Jesus Christ an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n fact, sometimes I think I have more access, because I know I have to come through faith, and some of those good people might think that they can come on their own sometimes. But I know I can't.

그리하여 예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동등한 기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도 빌리 그래함 이나 교황이나 어떤 누구들만큼이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마련된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사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와야 하니까요. 종종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So you, as a child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have access to God, and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at your background is. For as far as our being in Christ,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There is no male superiority. God doesn't listen to men more readily than women. Or, on the other hand, He doesn't listen to women more readily than men. We are all brought to one common denominator in Jesus Christ and we're all one in Him.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안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출처가 어떻든지 그게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남성 우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 보다 더 신속하게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보다 더 신속하게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명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의 안에서 하나입니다.

Galatians 4

Tape #C2598

By Chuck Smith

갈라디아서

Chapter 4

Now I say, That an heir, as long as he is a child, differeth nothing from a servant, though he be lord of all; But is under tutors and governors until the time appointed of the father (4:1-2).

So, Paul now gives us an illustration of a... Here's a little child. He is born in the Rockefeller family. One day he's going to be heir to the Rockefeller fortunes. But as long as he is in kindergarten, he can't go out and sign checks for a million dollars. Though one day it'll all be his, right now he's a child. He's under the tutors; he's under the trainers, the governors who are teaching him those things that he needs to know to manage the fortune when once it becomes his. Now he's the heir of all things, but he can't really spend it yet until he comes to that appointed time of maturity and all when he's been prepared by the tutors and the teachers to then handle properly this whole vast fortune.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4:1-2)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여기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하며 실례를 들어 줍니다. 그는 록펠러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언젠가 그가 록펠러 재산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나가서 백만 달러짜리 수표에 싸인을 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지라도 지금은 그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정교사인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은 모든 재산이 그 어린 아이의 것이 될때 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선생들과 가정교사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 그 거대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서 약속된 그 날이 차기 전에는 아직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You're an heir of God. Now, as long as we are in a state of development and maturing process, though I am the heir of all of God, I am waiting for the

time appointed of the Father when I enter into that inheritance. In the meantime, I'm being trained how to handle it. Relationships.

Even so we, when we were children, were in bondage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was come, God sent forth his Son, made of a woman, made under the law, to redeem them that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Wherefore thou art [you are] no more a servant,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4:3-7).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에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발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에 내가 상속을 받도록 아버지가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훈련받습니다. 관계들 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 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4:3-7)

So, the law was more or less a tutor, a governor. But now in the fullness of time, Jesus came, born of Mary. He came under the Jewish law, grew up in a Jewish home, followed the Jewish law. Only, did follow it perfectly. In order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Now, this idea of being under the law is being under the sentence of the law. You see, when you violate the law, then you come under the law. That is, you have...the law has made a demand upon you. That demand must be fulfilled for you to be free.

그래서 율법은 가정교사,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차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에 따라 오셨고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유대의 법을 따랐습니다. 오직 그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 하시려고 그 율법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이제, 율법아래에 있다는 이 사상은 율법의 판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의 판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법이 요구 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려면 그 요구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If you go speeding down Fairview Avenue eighty miles an hour, and the policeman pulls you over, writes you up, you have to go over to Harbor Municipal Court, and they will say, "Your fine is a hundred and fifty dollars." You say, "Well, I would like to see the judge, all right?" And they'll give you your day in court. And the judge will say, "You're charged here with going eighty miles an hour in a fifty mile an hour zone. Are you...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Well, Judge, I..." "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But I...there was..." "How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Did you go eighty miles?" "Yes, but..." "Hundred dollars." "But Judge." "You want a trial by court or jury?" "Well, I'll take a trial by court." "Well, you're guilty. Hundred dollars."

여러분이 페어뷰우 길(fairview ave.)을 80 마일의 속도로 달린다면 교통 경찰이 여러분을 정지시키고 티켓을 쓸 것이며 여러분은 법정에서 가야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벌금은 백 오십불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를, “그럼 재판관을 만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법정에서 언제 나오라는 날짜를 줄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말하기를 “당신은 50 마일로 가야하는 곳을 80 마일로 갔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되었는데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죄라고 탄원하세요? 무죄라고 탄원 합니까?” “재판관님, 그러나--나는--거기에--” “당신이 어떻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탄원 합니까? 당신이 80 마일로 갔습니까?” “ 예, 그렇지만 ---” “100 불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 “당신은 재판을 법정에서 받겠습니까 아니면 배심원에 의해 받겠습니까?” “네, 법정에서 받는 것을 선택 합니다.” “그럼, 당신은 유죄입니다. 백 불입니다.”

They'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y're only interested in guilt or not guilt. And the sentence is imposed. Now you say, "But Judge, I don't have a hundred dollars." "All right, five days in jail." Now, that's the demand of the law upon you. You're under the law. So the bailiff comes in, he puts the handcuffs on you and takes you off to jail for the next five days. You're under the law. And until you have sat there for five days, the law has the hold over you. Once you have sat there for five days, then you're no longer under the law. Its demands have been fulfilled and you are now set free.

그들은 실제로 상황의 정상참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죄냐 무죄냐에만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는 다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재판관님, 제게 백 불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일 징역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법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와서 당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오일간 감옥에 넣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으므로 5일을 그곳에서 앉아 지내는 동안 법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 5일을 앉아 있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법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자유

롭게 되었습니다.

Now, being under the law of Moses is a little more serious, because the penalty there is death. And so, I'm under the sentence of death by the law of Moses. I'm under this law, under this sentence of death, and I cannot be set free until the law has been fulfilled. And so men, up unto the time of Christ, were under the law, under the sentence of the law, under the curse of the law. But in the fullness of ti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under the law, that we who were under the law might receive this glorious adoption of sons.

모세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좀 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의 법으로 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 다. 나는 이러한 법 아래 있으며 또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법이 만족될 때까지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과 율법의 선고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율법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양자가 되는것을 받아드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여인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Now I am a son of God, but not in the same manner as Jesus is a Son of God. Beware of any teaching that would put you on an equal par with Jesus Christ. There are some very dangerous teaching by some of the popular Pentecostal evangelists in which in their books they finally come to the conclusion. Of course, they have books on the authority of the believer and things of this nature, and in some of their books they'll finally write, "So that I am Christ. Thus, I can make demands upon God, because I am Christ." That is extremely pernicious heresy.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등한 아들로 여러분을 올려놓는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위험한 가르침이 어떤 유명한 오순절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 가르쳐 지고 있으며 그들의 책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쓴 책이 믿는 사람들과 이러한 성격의 일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에 결론을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단입니다.

I am not a son of God as Jesus is a Son of God. He was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ere's only one begotten Son of God, that is Jesus Christ. I am a son of God, yes. I'm an

adopted son of God; God has adopted me into His family. Now I'll take that. I love that. It's great to be a son of God even if by adoption. I was born by the Spirit, born again into the family of God, but yet, it was by adoption that God chose me. Jesus i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so that He came to redeem those that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of sons.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which is the Hebrew word for daddy. That beautiful, close, intimate relationship that God wants you to experience with Him, to look to Him as your Daddy, as your Father.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분인 독생자가 있었으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양자이며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 드릴 것이며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중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우리가 입양될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바라고 부르짖습니다. 히브리말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답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 같이 또 아버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Jesus said, "And when you pray, s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Matthew 6:9). That beautiful, close relationship with God. "Wherefore you are no more a servant, but a son." As a child under the law, you didn't differ at all from the servants. You couldn't really have the inheritance. The inheritance comes through Jesus Christ. It does not come through the law. The law was the tutor unto the time of Christ. Once Christ is come, the promise fulfilled. Now, by faith we are redeemed from the law that we might be adopted as sons of God, and as the sons of God, now become the heirs of the promises of God and of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If a son, then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 6:9).** 그것은 하나님과 아름답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어린아이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종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때를 가르쳐 주는 가정교사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단 오셨으므로 그 약속은 성취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율법에서 구속함을 받았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Howbeit then, when ye knew not God, ye did service unto them which by nature are no gods. But now, after that ye have known God, or rather are known of God, how turn ye again to the weak and beggarly elements, whereunto ye desire again to be in bondage? (4:8-9)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 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4:8-9)

Now, there are people who really know not God, and yet, they do all kinds of ritualistic things. They'll put on grotesque masks, and they'll paint their bodies, and they'll go through a dance. And they will wave swords and they will go through all kinds of gyrations, physical gyrations, and they will assure you that by doing these things they are going to bring rain. For they have just, you know, gone through the rain dance thing, and now the gods are going to send rain as the result of these incantations and machinations that they have gone through. Wearing their various colored robes or loincloths, or whatever the case may be, because you find in different cultures all different kinds of get-ups and dresses for these men who are doing these things as service unto God to bring the favor of God upon the people.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종류의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상 한 가면을 쓸것이고 자신들의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춤을 추면서 지나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칼을 휘두르며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회전을 할것이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비를 오게 하리라고 확신할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금방 비 오게하는댄스를 마쳤습니다. 그 들이 행한 주문과 책략의 결과로 이제 그들의 신이 비를 보내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 러 가지의 색깔의 두루마기를 입거나 허리 띠를 띠든지 무엇이든지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의 복장이나 의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알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Now, in the church, we have men who put on robes of different colors and high hats, and wave scepters over the people, shake water on them, and declare that by these things they can bring God's blessings upon your life. That's exactly what Paul is talking about. When you were still heathen, when you were still pagans, "you did service unto them which by nature are not really gods." You were doing your pagan exercises, your pagan rituals. "But now, after you have known God, or rather are known of God, how is it that you're turning back to this ritualistic relationship, to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whereunto they desire again to be in bondage?"

교회 안에서 색깔이 다른 두루마기를 입고 높은 모자를 쓰고 사람들에게 흠을 흔들고 그들에게 물을 흔들면서 뿌리며 선언하기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의 삶에 임하시게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방인 이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이교도였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여러분이 이교도로 살며 이교도의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기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Most of the practices of holy days and so forth that we have in the church come from heathen, pagan practices. So,

Ye observe days, and months, and times, and years (4:10).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날들이나 절기들은 이방과 이교도들이 지켰던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4:10)

You have your Lent season. You have your All Saints day. Going back to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of the past, rather than going forward into this new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I imagine a lot of radios have just been turned off, but that's the truth. Paul said,

I am afraid of you [or I am fearful], lest I have bestowed upon you labor in vain. Brethren, I beseech [beg] you, be as I am; for I am as ye are: ye have not injured me at all (4:11-12).

사순절과 성도제의 절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앞으로 가는 것보다 도리어 약하고 천한 과거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

은 라디오가 그저 꺼져 있는 것을 내가 상상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1-12)

"Now, don't be offended with me," Paul is saying. "I'm not offended with you. Be as I am. I'm not angry, I'm not offended; I love you. But I've got to tell you the truth, and sometimes the truth is painful. So don't be upset with me. Be as I am, for I'm really not upset with you. You've not really injured me. So be as I am, don't be injured by me or feel injury towards me." For Paul said,

Ye know how through infirmity of the flesh [or the weakness of the flesh] I preached the gospel unto you at the first. And my temptation [or trial] which was in my flesh ye despised not, nor rejected [me]; but [you] received me as an angel of God, [you received me] even as Christ Jesus (4:13-14).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나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화를 낸것도 아니고 기분도 상하지 않았으며 나는 여러분을 사랑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고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기분이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나처럼 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게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나처럼 되시고 나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나에게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4:13-14)

When I came to you, I was weak. I was sick. I had a real problem physically. But yet you openly accepted and received me like an angel of God or even as Jesus Christ Himself.

Where is then the blessedness ye spake of? (4:15)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약했고 몸이 아팠었습니다. 나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용납 할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처럼 받아 주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4:15)

When they first received the gospel through Paul, oh how happy they were. How joyful, as their lives were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Now these men have come in and brought in these perverse teachings, brought them into a ritualistic relationship. Gone, have gone back to some of the weak and the beggarly elements. Tried to put them under regimen and a routine and a ritual relationship with God, rather than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Paul said,

for I bear you record, that, if it had been possible, ye would have plucked out your own eyes, and have given them to me (4:15).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행복 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를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그들을 의식주의적인 관계로 끌어들이 일부의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어떤 지배 아래서 기계적이며 의식주의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 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4:15)

So, this is no doubt a hint towards what Paul's weakness in his flesh was: an eye problem. Now in those days, they had some oriental diseases affecting the eyes, causing a constant kind of a pink eye condition, the running sort of conjunctivitis of which they had no cure. And so, it would affect the eyesight. It was repulsive to look at, and some believe that this is what Paul had. And yet, Paul says, you know, "You received me; you love me so much that some of you would have been glad to give your eyes, given your eyes to me."

Am I therefore become your enemy,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4:16)

그래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이 그의 육체에 가진 약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눈에 영향을 주는 동양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을 계속적으로 빨갛게 되도록 하며 고칠 수 없는 결막염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은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보기에 불쾌 하게 보이는 이병을 바울이 가졌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 여러분은

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너무 사랑함으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기쁘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4:16)

You know, some people make it hard to really be honest and truthful with them, because of the way they react. Some people rebel against the truth. Some people don't want to hear the truth. "I'm comfortable the way I am. Don't bother me with facts, my mind is made up. Now I don't want the truth. Tell me how well I am. Tell me how good I am. Tell me how nice I am. Don't tell me the truth. I don't want to hear the truth." And so, there are those that are bound within a certain system in relating to God. "This is the way my father did it. This is the way my grandparents did it. Don't bother me with the truth. I'm happy here. I'm satisfied here. I don't have to do much. Just sit and watch." And people are disturbed by the truth. Paul said, "Have I become your enemy because I've told you the truth?" Now,

They zealously affect you (4:17),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의 반응 때문에 어떤 삶들은 그들과 솔직하고 진실 하게 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편안 합니다. 나를 그 사실로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실을 원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해 주시고 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떤 제도안에서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셨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방법이구요. 그 사실로 인하여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행복하며 만족합니다.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로 인해 불안하게 느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4:17)

And many of these persons are extremely zealous in their presentation.

but not well [it is not good]; yea, they would exclude you, that ye might affect them. But it is good to be zealously affected always in a good thing, and not only when I am present with you (4:17-18).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표현으로 볼때는 대단히 열심히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을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4:17-18)

So, these guys are there. They zealously affect you, but actually they would exclude you from God for that, that you might affect them. That you might support them and all. So Paul said,

My little children [term of great endearment], of whom I travail in birth again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4:19),

So, Paul's response is travailing prayer. "Oh, my little children, for whom I travail in birth 'til Christ be formed in you."

I desire to be present with you now, and to change my voice; for I stand in doubt of you (4:20).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다 지지 할수 있으니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4:19)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4:20)

Now, writing is, many times, difficult because you don't hear the tonal inflections. And many times, it's the way something was said that causes you to interpret what is being said. And this is the unfortunate part of the scripture, because I think that many times we misinterpret the scriptures, because we read into it a tonal inflection, which may not necessarily be there.

편지로는 음색의 억양을 들을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로 쓴다는 것은 매

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그 말한것을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해석하게 되는데 음색의 역량을 읽어야 할때 그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For instance, when God came to Adam in the Garden of Eden after Adam had disobeyed, and God said, "Adam, where art thou?" What was the tone of voice? And I'm certain that many times we think it was the tone of voice of an arresting officer ready to haul you off to jail. "Adam, where art thou?" Yeah, you know. But I really believe that that was, if you heard the tone of voice, the sob of a heartbroken father whose child had just messed up. "Adam, where art thou? Oh, Adam, what have you done?" And I don't hear judgment and thunder ringing in the voice of God; I hear heartbreak in the voice of God.

예를 들면,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의 어조가 어떠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많은 경우 그것은 당신을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을 준비를 해놓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어조로 생각할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엉망진창이 된 자녀를 가슴 아프게 찾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부르짖는목소리의 어조를 들어 보았다면 내가 믿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줄 압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 아담,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내게는 아무런 심판의 소리도 천둥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So many times, I think we imagine God thundering on us in heavy judgment, when in reality, His heart is broken over our failure, and His desire is to restore us. “My little children, for whom I travail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Oh, how I wish I were there to change my tone of voice so you can hear my tone of voice, because I really stand now in doubt of you.”

Tell me, ye that desire to be under the law (4:21),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you're doing? You that want a legal relationship to God, do you really understand what this entails? Do you really know what this means?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천둥 치듯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상상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듯 아파하시고 우리를 회복 하시는 것이 그의 바라심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 내가 너희와 그곳에 있어 나의 음성을 바꾸어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기 때

문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4:21)

여러분이 무얼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 뒤에 무엇이 따라 오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the one [was] by a bondmaid, the other [was] by the free woman. But he who was of the bondwoman was born after the flesh; but he of the free woman was by promise of God. Which things are an allegory: for these are the two covenants [that God has made]; the one from the mount Sinai, which gendereth to bondage, which is Agar [that is, the flesh]. For this Agar is mount Sinai in Arabia, and answereth to Jerusalem which now is (4:22-25),

That is, all of the temple, and the law, and all of the ritual in the relationship to God through the law and through the temple, the Jerusalem which now is,

and is in bondage with her children. But Jerusalem [the spiritual Jerusalem] which is [from] above is free, which is the mother of us all. For it is written, Rejoice, thou barren that bearest not; break forth and cry, thou that travailest not: for the desolate hath many more children than she which hath a husband (4:25-27).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4:22-25)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성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성전의 모든 것과 율법과 모든 의식을 말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보다 많음 이라.(4:25-27)

Now, this is quoting from Isaiah 54, and it is a scripture that relates to Israel when God restores upon Israel the national favor and blessing again. And as they then look back, they will see that God has brought forth many more children from the Gentile nations than from Israel. The weeping, the chagrin that will come to them when they realize that they have rejected God's Messiah. And they see how that from among the Gentiles, God has brought forth these millions to believe. And so, the barren has brought forth more children than she which had a husband, the nation of Israel. And so, those that are of the promise. Those that are of the Spirit contrasted to those that are of the flesh.

이것은 이사야 54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은총과 축복을 회복하실 때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를 돌아 볼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보다 이방 민족의 자손들을 더 많이 하신 것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한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분함 과 울음을 참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수만의 믿는 자를 불러 일으키셨는지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치 못한 자가 남편 있는 자, 이스라엘 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을 대조한 것입니다.

Paul uses the allegory of the line of the flesh, Hagar. That was a fleshly expediency by Sarah and Abraham in attempting to help God out. And when Ishmael was about thirteen years old, Abraham was sitting in the tent, and God said, "Abraham, I'm going to give you a son." And Abraham said, "Lord, let Ishmael live before You forever." In other words, "Don't put me on anymore, God, I'm satisfied. I've got Ishmael, you know, given up with Sarah. Let Ishmael." And God said, "No, through Sarah shall thy seed be called." The son of promise. One was the son of the flesh; the other was a son of promise. The two covenants. The law relates to the flesh, but the covenant of promise, that is, of Jesus Christ, relates to the Spirit.

바울은 하갈을 육체적인 계열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 주려고 시도했던 육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약 열세 살이 되던 때에 천막 안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 주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자면,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만족 합니다. 제겐 이스마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시다 시피 사라와는 포기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야, 사라가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라 불리우리라.” 그가 약속의 자손이라 불릴것입니다.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약

속의 아들 이었습니다. 두 개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관련되지만 약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And thus, in our relating to God, we must either relate to God through the law or through the Spirit.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or through the Spirit. But “by the works of the law it is evident no one can be justified” (Galatians 2:16). So, that leaves us, really: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can only be wrought by the Spirit and your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통하든지 또는 영을 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여야만 합니다. 행해야 하는 율법을 통하든지 성령을 통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16)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Now we, brethren, as Isaac was, are the children of promise
(4:28).

I've been adopted as a son of man, redeemed by Jesus Christ, and I have become the children of promise.

But as then he that was born after the flesh persecuted him
that was born after the Spirit, even so it is now (4:29).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4:28)

나는 사람의 아들로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4:29)

And so, Ishmael was vexing Isaac in time to come. Making fun of him, mocking this little kid. And so, Sarah was upset at the way Ishmael was treating Isaac. And Sarah said, "Get rid of that bondwoman; I can't take it anymore." And Abraham was hurt over this, because he loved Ishmael; he was his son. But the Lord spoke to Abraham and said, "Listen to your wife Sarah." And so, Abraham pu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Nevertheless what saith the scripture?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bondwoman shall not be heir with the son of the freewoman. So then, brethren, we are not children of the bondwoman, but of the free (4:30-31).

그래서 이스마엘은 때가 이르기까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놀리기도 하고, 이 작은 아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것 때문에 사라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이 여종을 내어 쫓아 버리시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했으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하는 여자의 자녀니라.(4:30-31)

The bondwoman referring to the law, to Mount Sinai, could not bring man into the blessings of God. All it could bring man was the curse. It is interesting, you remember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ame into the Promised Land under Joshua, and they came to the area of Shechem. Representatives of six tribes were to be on Mount Gerizim and representatives of six tribes were to be upon Mount Ebal. Now, those that were on Mount Ebal, the mount of blessing, didn't say anything, because the law could not bring a blessing. But those that were upon Mount Gerizim, twelve times said, "Cursed be the man." And they would call this down, and it would echo down into the valley of Shechem where all of the people were. Because the law could only bring a curse, it could not bring redemption; it could not bring a man into the blessings of God. It is the Spirit through Jesus Christ that brings you into the blessing of God.

그 여종이란 율법과 시내산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끌어 드릴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것은 저주뿐입니다. 이걸 흥미로운 겁니다. 여호수아의 통솔아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세겜 지역에 들어온 그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섯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리심 산에 그리고 다른 여섯 지파의 대표자들은 에발산에 있게 했습니다. 축복의 산인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축복을 가져 올 수가 없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심 산에 있던 사람들은 열두 번이나 말하기를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세겜 골짜기 아래 까지 메아리쳐 들리게 됩니다. 율법은 오직 저주만 불러오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하는것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We are not the children of the bondwoman. We don't relate to God through the law. We do not relate to God through our works or through our righteousness. But we relate to God through the promises of God given to us, which we, by faith, believe and accept, and enter in and receive then the blessings of God. Something the law could not do is to bring me into the blessings of God, but my faith in Jesus Christ causes me to abound in the blessings of God.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들이 아니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드리며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데려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This teaching of Paul to Galatians is important because we all seem to hold onto a concept of reward for good, punishment for bad. And that's life. That's the way we grew up. That's the way we were trained. The enforcement of good behavior by reward, the punishment of bad behavior. That's all I've known all my life. But that is not how I relate to God. And it's important that when I seek to relate to God, that I dismiss this concept by which I was trained. And that I relate to God through faith, believing the promises of God that He loves me and wants to bless me. And believing God to bless me even though I know that I have failed. I know I don't deserve it. I know I'm not worthy. I know my works don't measure up to it. But to receive by grace the blessings of God through the promises. I'm a child of the free woman, a child of promise. And since discovering that, I have never ceased to receive the blessings of God in an ever-increasing measure.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좋은 일을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 왔으며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은 행동은 상을 줌으로서 또 나쁜 행동은 벌을 줌으로서 시행케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삶을 통하여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찾을 때 내가 훈련 받은 이 관념을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내가 실패한것을 내 자신이 알찌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

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내가 행한 일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나는 자유 하는 여자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나는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This past week I met a young man who was here at Calvary Chapel when we first started. Through some tragic experiences, turned away from God, was bitter against God, and for years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Christ or with God. He was bitter. I had a funeral this past week for his grandmother. He was there. He came up and put his arm around me, hugged me, told me how glad he was to see me, and how he had recommitted his life completely to Jesus Christ. He said, "You know what it was?" He said, "God just kept blessing me." He said, "Every way I turned, I was blessed of God. He just kept blessing me so much I couldn't handle it. I finally just said, 'God, I give up, I can't handle it. Your blessings are so marvelous!'"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서 갈보리 채플을 처음 시작 할 때에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여기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원한으로 찻으며 지난주에 내가 그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을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더니 그의 팔로 나를 껴안으면서 나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재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축복 하셨습니다. 내가 향해 가는 모든 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He said, "I kept waiting for the ax to fall. I kept waiting for God to really, you know, wipe me out." But he said, "He never did. He just kept blessing me and I couldn't handle the goodness of God. So, I just dedicated my life to Him again." I said, "The scripture says, 'Don't you realize it's the goodness of God that brings a man to repentance?'" Oh, God is good. We're children of the promise. And God wants to bless you. Why don't you let Him? Just believe Him to bless you. Trust Him to bless you.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도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싹 없애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계속 나를 축복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그에게

재 헌신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 하십시오.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You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thank You for this new covenant, the covenant of promise based upon Your work that You have promised to do. And because, Lord, it's based upon Your work, it is sure. For Your work is sure. Lord, bless Your people tonight. May they go from here, Lord, blessed in every direction, as you pour forth upon them Your love, Your blessings, through Jesus Christ. Amen.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감사 합니다. 새로운 약속, 주님의 일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듯 그들이 이곳을 떠나 어느 쪽을 갈지라도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You know, I wouldn't dare to say these things unless the scripture did. Because it's not really, you know, according to my conceptual thinking. This isn't the way I respond. I respond, you know, in the old ways to people. You're nice to me; I'll be nice to you. Good to me; I'll be good to you. Get nasty with me; I'll get nasty with you. It's hard to handle God and the grace of God. His goodness to me, though I have failed, though I don't deserve it. But because the scripture teaches it, I dare not depart. I dare not declare anything else.

성경 에 쓰여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의 개념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옛날식으로 응답 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잘해 줍니다. 나도 여러분한테 잘하겠습니다. 내게 잘하고 여러분에게 잘하고. 내게 못나게 굴면 나도 여러분에게 못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가치가 없는 자 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어떤 것이라도 단언 하지 않습니다.

I must declare to you what God has declared to be true of y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of His desired relationship with you. He doesn't want a legal relationship; He wants a loving relationship. He wants you to love Him and

to know how much He loves you. And He wants you to come to Him on that basis of love, His love for you. And when you learn to come to that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your life would be blessed, so blessed, because you're not now limiting the blessings to your works of righteousness. You're not keeping back the blessings because of your lack of works of righteousness. But you're being blessed on the basis of God's promise and God's work for you in Jesus Christ, which never ceases.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참된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여러분과의 관계의 참됨을 나는 여러분한테 단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축복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부족하다 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뒤꼍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근거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치지 않습니다.

Father, let this be the turning point of our lives tonight. Impress Your truth upon our hearts in Jesus' name. God bless you.

아버지, 이것이 오늘밤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되는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참됨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명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Chapter 5

Shall we turn now to Galatians chapter five. The whole concept is: how do I establish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Can I b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Or am I righteous by my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Now, Paul taught righteousness through faith. There followed Paul teachers, Judaizers who brought another gospel, which was not really a gospel. For they were saying that was it was necessary to be circumcised and to keep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be righteous before God, to be saved. And so Paul is standing against this teaching in his letter to the Galatians, and in chapter five, he said,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5:1).

갈라디아서 5 장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 지는가? 이제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것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교 선생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할뿐더러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 이 가르침을 반대합니다.

제 5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Now, in the fifteen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when this same issue had arisen in the church in Antioch, when certain of the brethren came down from Jerusalem and were hassling the Gentile saints in Antioch and said, "You

can't be saved unless you are circumcised and keep the law of Moses," Paul and Barnabas and others from Antioch took these brothers right back to Jerusalem, because they came unto the pretense of, "We have the authority of the Jerusalem church to declare these things." So, they went right up to settle the issue, and the church had one of the first church councils gathered to settle a dispute, a problem within the church.

사도행전 15 장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도 똑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 안디옥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혼란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곧장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으로 온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것들을 선언 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하기에 그들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 안의 이 분쟁을 해결 하려고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And in the fifteenth chapter of Acts, we read how that Peter stood up and told the brethren how that the Lord had called him to go to the Gentiles to the house of Cornelius. And how the Holy Spirit had come upon those of the house of Cornelius who had known nothing really of obedience to the law. And Peter said, "I suggest that we not place a yoke of bondage on them which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So, Peter uses this same phrase to describe the law as a yoke of bondage. He said, "We haven't been able to keep the law, why should we put them under it?" And so, Paul is picking up, now, the same phrase. No doubt he heard Peter use it there in Acts 15, and he said, "Stand fast in the liberty wherein Christ has set you free."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집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율법의 순종 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지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사도행전15:10).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똑 같은 구절을 사용하며 율법을 속박의 멍에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멍에아래 있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같은 구절로 계속 말합니다. 사도해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구절을 바울이 들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굳세게 서라 .”

Now, let us not believe or think that this liberty that we have is the liberty to do anything we might want to do in the flesh. That is not the liberty that we have as Christians. The liberty that we have is not to do the things of the flesh. Thank God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from my bondage to my flesh. I once was in horrible bondage to my flesh. But now I have liberty in Christ Jesus, for I don't have to follow after the flesh anymore. So "stand fast in that liberty wherein Christ has made you free." He has set you free from the power of the flesh. Don't be entangled again with rules, regulations, a yoke of bondage.

Behold, I Paul say unto you, that if ye be circumcised, Christ shall profit you nothing (5:2).

자,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자유라고 믿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육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는 무서운 육신의 속박아래 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육의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그분이 여러분을 육신의 권능으로부터 자유 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제도와 법과 속박의 멍에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5:2)

That is, if you are circumcised ritually for the purpose of having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If that is the purpose, you're thinking that it's going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you think it's going to make you acceptable before God, Paul said, "Christ will profit you nothing," if that's your mental attitude towards your circumcision.

For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that is circumcised, that he is a debtor to do the whole law (5:3).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적인 할례를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락 될 수 있도록 만들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또한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할례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인 태도라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고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 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5:3)

In other words, if you're going to take this as an act of righteousness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as being a part of the law, then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keep the entire law in order to be righteous before God. For if a man "keeps the whole law, yet he offends in one point, he is guilty of all" (James 2:10). So "cursed is the man that continues not in the whole law to do that which is written therein" (Galatians 3:10).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of you who are justified [or seeking to be justified] by the law; ye are fallen from grace (5:4).

바꾸어 말하자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의 일 부분이므로 의로운 행동으로 받아 들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2:10).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3:10).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다 (5:4)

Very powerful words for those who would seek justification through the law, through rules, through keeping rules, through keeping ordinances. If you're looking to that as a righteous standing before God, then you are not experiencing the grace of God in your life. Now, the whole idea is to be righteous before God in order that I might have fellowship with God. "What fellowship hath righteousness with unrighteousness?" (2 Corinthians 6:14) How can I really fellowship with God if I'm unrighteous? So I must be righteous in order to have fellowship with God.

율법이나 규율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나 제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능력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견해는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고린도 후서 6:14)**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사귀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를 가지기 위

해 내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Now, there are two ways that I can be righteous. I can say, "Well, this, these are the rules of righteous living. You've got to do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you can't do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And I can set up these rules, and I can get out my little gold stars. And at the end of each day, I can paste my gold stars on those that I've kept. But if I have a whole page of gold stars but yet there's one little point over here where I blew it and I can't put a gold star, then I'm unrighteous. I violated. "If you keep the whole law yet offended in one point, you're guilty of all."

내가 의로워 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흠, 이것들이 의롭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것과 이러 이러한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러 이러한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규율을 만들어놓고 매일 그날이 끝날 때 나는 조그마한 금 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규율을 지켰기에 나는 그 금 별을 나의 도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도표를 금 별로 가득 채우는데 여기 한구석에 내가 잘하지 못한데 가 있어 나는 금 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법을 어겼으므로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야고보서 2:10)

Now, the other way to be righteous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receiving that grace of God through Him, where God accounts me, as He did Abraham, righteous because I believe. Now, that righteousness depends upon the work of Jesus Christ as my sacrifice, as my substitute. It is predicated upon the work of God. Therefore, that righteousness is perfect. It will stand. And it is given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That's what God account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ccounted to my account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나 의롭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과 같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십니다. 그 의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완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것이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Now, because I can't keep the first, I have opted for the second. Because I can't and haven't kept the whole law, I'm thankful that God accounts me righteous and I can have fellowship with the righteous God because of Jesus Christ and my faith in Jesus Christ. Now, if you're trying to be justified before God or being made righteous before God by the keeping of the law, then Christ is of no effect to you. You can't be both.

For we through the Spirit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5:5).

이제 첫 번째 것은 내가 지킬수 없으므로 두번째 것을 선택 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나의 믿음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양편이 다 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5:5)

That's the position where we stand. By the Spirit of God, we're waiting for that hope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For in Jesus Christ neither circumcision avails any thing, nor uncircumcision; but faith which worketh by love (5:6).

So, I think Paul could also have included here baptism or no baptism as far as the physical immersion in water. He's talking about rituals and the power of rituals to make you righteous before God, and the issue is, they can't. What makes you righteous before God is your faith, which works in love within your heart and life.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6)

그래서 내 생각에 바울은 신체적으로 물속에 잠기는것에 관하여 침례냐 아니냐 하는것도 여기에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의식과 의식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 과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Now,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those who opt for rules, those who opt for laws, those who want to lay down the laws upon the people, or those who want to live under the laws that are laid down upon them, always seem to be striving. We have those that come around here. They're wanting to strive, they're wanting to argue; they're wanting to prove their points how that baptism is essential for salvation. And they want to get on our case because we don't run down every night and baptize people the moment they're saved. Because we wait to have our baptisms 'til the water gets warmer.

내게 흥미로운 것은 규칙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율법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법을 강요하는 사람이 자신도 법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애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들은 다투기를 원하며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녁에 달려 내려가 사람들이 구원 받자마자 당장 침례를 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의 일을 간섭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할 물이 따뜻해 질 때 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baptism doesn't save. It's faith in Jesus Christ that saves. It's the operation of God's Spirit within our heart that works through love. Not contention. Not striving. But it works through love. And any kind of a relationship with God that causes me to strive with my brother, causes me to become contentious, is really something that I'm not interested in. Causes me to become judgmental. It's faith which works by love.

그것은 침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고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와 다투게 하며 논쟁 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 행하는 믿음입니다.

Now Paul said,

Ye did run well (5:7);

Again, you remember he said, "You did start well. What did hinder you? Ye did run well." Having begun in the spirit, you did all right in the beginning, but

who did hinder you that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This persuasion cometh not of him that calleth you (5:7-8).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달음질을 잘하더니 (5:7);

다시금, 그가 말한 것을 기억 하십시오. "시작은 잘 했는데 무엇이 너희를 막더냐? 너희가 달음질을 잘했다." 성령으로 시작 해서 처음에는 잘하더니, 그러나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5:7-8)

In other words, you did not get this from God. I really like to say that to the Jehovah Witnesses that come to my door. "This persuasion didn't come from Him who called you." You couldn't believe the things the Jehovah Witnesses believe, unless you read their screwy attitudes and ideas in their books. I mean, you never get it from reading the Bible and waiting upon God. Your mind has to be bent in that direction through their writings. And so with the Mormons. You never come to believe in what the Mormons believe through reading the Bible. It comes by reading the book of Mormon. "This persuasion, this ideas that you have, they don't really come from God, from the One who called you. They are ideas that have been planted in your mind by men."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이 말을 나의 문을 두드리는 여호와 증인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설득력이 당신을 부른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책에 있는 뻘뻘어린 생각과 태도를 읽어 보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될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 방향으로 구부러져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서 물몬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게 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몬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각들이나 설득시키려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 생각 들은 사람에게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심겨진 것들입니다."

Now, a lot of times when people come to me with some weird concept, I'll say, "Where in the world did you get that idea?" And sometimes they'll lie to me. And they say, "Oh, well, I was just waiting upon the Lord and reading the Scriptures, and the Lord showed this to me." I said, "That's a lie." "Here, I'll show it to you in this book." "Have you been reading this book?" "Well, yeah, I read that book but, you know, God showed it to me." No, this persuasion doesn't come from Him who called you. You weren't persuaded to be circumcised because God was speaking to your heart and convicting you of this. These concepts, these heresies that develop within the church are passed on by men. They don't come to man from God.

여러 번 사람들이어떤 괴상한 개념을 가지고 나를 찾아 올때, 나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주께서 이것을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이 책에서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어, 예, 내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부터 온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 하시고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할례를 받도록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 의해 개발되어서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And the Jehovah Witnesses, just the Arian heresy of the early church. The prosperity doctrines of the gnostic heresy of the early church. They're just warmed over, put in a new coat, and declared by a fresh voice, or sometimes the voices aren't so fresh, but they're things, concepts that... And you find that these people espousing them are plagiarizing from other people who have espoused them, and it goes back and back and back. But not from God. That is why I encourage you just to read the Bible. I am not at all worried about anything you will come to believe by just simply reading your Bible. I don't think you need anything more than the Bible to really know the truth of God. And I encourage you to just read your Bible.

여호와 증인들은 초대 교회의 아리안파의 이단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의 변영의 교리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어서 새로운 가축을 뒤집어쓰고 신선한 목소리로 선언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목소리는 신선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것들, 관념이 신선한 것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그들의 사상이나 문장이나 사고를 표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그 근원에까지 돌아가며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 믿음에 이를 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에게 성경 외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권장 합니다.

Now, why is it that Jehovah Witness can't tell you that? Because you'll never come to their beliefs just by reading the Bible. Why can't the Mormons tell you that? Because you'll never come to their beliefs by just reading the Bible. So the minute I start peddling books and saying, "Now, to really understand the Bible, you better read my books, because you'll just, you know, read the Bible, you'll be in darkness. It's just, you know, too difficult. Just let our books explain for you." "This persuasion didn't come from God."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5:9).

그럼 왜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절대로 그들이 믿는것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 물몬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들이 믿는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시한 책들을 읽으려 하는 순간 말하기를 “이제,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려거든 내 책들을 읽는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성경만 읽으면, 어두움에 헤메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책들이 잘 설명할것이니 읽으세요.” “이 권면이 하나님에게서 난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5:9)

You open the door for a little error, and it will soon magnify because you see, as you've opened the door for this error, then as you are challenged on the flaws of the error, you're going to have to develop further doctrines to cover or further concepts to cover, and pretty soon, you're going to be way out in left field.

여러분이 조그마한 오류에 문을 열면, 여러분이 실수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확대 될것입니다. 그러면 오류의 폭풍우와 싸워야하며 그것을 감싸기 위해 더 많은 교리와 또는 더 깊은 개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여러분은 외진 곳으로 멀어져 갈것입니다.

There is a group called Jesus Only, and they believe that Jesus is the Father, He is the Son, He is the Holy Spirit. It's Jesus only. Unitarians. And they are quite zealous in their beliefs, very fervent in the proclamations of their beliefs. And I

had some who were determined that they were going to convert me to their way of thinking.

오직 예수(Jesus Only) 라고 부르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아들이며 또 예수가 성령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유일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것을 선언할 때에도 매우 열광적입니다. 몇 사람이 나를 그들의 생각의 방식으로 전향 시키려고 결심한 몇 사람을 압니다.

And I would listen to them and listen to them and listen to them; I don't really make a practice of arguing scriptures. And so, I would listen to these fellows, and I listened, you know, and just said, "Well, you know, that's what the scripture says, you know," when they would quote scriptures. Well, they thought that they had me convinced to their way of thinking. And so, they started telling people, "Well, Chuck believes this." And so then I had to go out to them and say, "Hey, you haven't convinced me of the truth of what you're declaring. I don't believe that." And then they started to rail on me and prophesy my death and things of this nature.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 구절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들은 후에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때, 그냥 내가 말하기를 "흠, 아시다시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나를 납득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 합니다. "그럼, 척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로 나를 납득 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들은 나를 불평하며 나의 죽음을 예언 하며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And so I said, "All right, tell me, when Jesus was baptized, who spoke and said,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Is He a ventriloquist? When in the garden, or when on the cross, Jesus cried,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Matthew 27:46) Who was He crying to? "Oh, well, He laid down His divinity before He died." I said, "Oh oh oh oh oh," you see,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Now you're, you know, chopping Jesus up, and said, "Well, He is God here, and but, for a while He wasn't God and the universe was without God for a little bit here, or whatever. And, you know, I mean, you're having now go to...you've taken a position Jesus is the only One. Now you've got to defend it against the challenges and so you've

got to start making up or taking positions that are thoroughly unscriptural in order to defend your position." And a little leaven soon leavens the whole lump.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때 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 3:27) 말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가 복화술자 입니까? 그가 동산에 계실때나 십자가에 달리셨을때 예수께서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태 27:46)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향해 외쳤습니까?” “오,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신성을 죽기 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오, 오,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제 당신은 예수를 조각으로 찢아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잠시동안 하나님 없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의 뜻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직 예수님 한분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의 구절이 아닌 것들을 당신의 위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둘러대야 하며 또는 주장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Even though it might be a minor departure from the truth, be careful. Try and stay right on course. If, when I got on board a 747 at LAX heading for Honolulu, the captain would say, "Now, folks, we're having a little problem here with our navigation instruments. We're about one degree off, but we hope to correct this in flight or something." I'd say, "Open the doors and let me off." If your navigational instruments are one degree off, and you take your heading and you start for Hawaii, by the time you've gone that distance, you'll miss Hawaii by two hundred and forty miles.

사실로부터 조금만 빗나간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로스엔젤리스 공항에서 747 여객기를 타고 호놀룰루로 간다고 합니다. 비행기 기장이 말하기를 “ 여러분, 우리의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조금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일 도쯤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기는 비행중에 고치거나 어떻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문을 열어 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항공 나침반이 일도 정도 빗나간 상태에서 호놀룰루로 향해 간다면 그 목적지에 도착 할 즈음이면 여러분은 하와이에서 240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Oh, by the time you get to Santa Barbara, you won't even notice anything. You know, you can look down and see the Channel Islands. You can see the Santa Rosa and San Miguel and San Nicolas and say, "Hey, hey, all right, we're right on course." One degree, and you've only gone hundred miles, you don't even notice. But you continue one degree off on out over the Pacific, and you

can miss your destination completely.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Now Paul said,

I have confidence in you through the Lord, that ye will be none otherwise minded (5:10):

오, 여러분이 신타 바바라에 도착 했을 즈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널 섬들을 내려다 볼 것이고 여러분은 신타로사 그리고 산 미구엘 그리고 산 니콜라스를 볼수있을 것이며 말하기를 "여봐, 괜찮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일도 차이가나면 오직 백마일의 차이이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 도씩 빛나간 상태에서 태평양 바다 위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목적지를 완전히 놓칠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5:10):

Now Paul is now saying, "Oh, who did hinder you, you know, and this teach and all. But I have confidence in you that you're not going to be persuaded by this. That you're not going to be otherwise minded."

but he that troubleth you shall bear his judgment, whosoever he be. And I, brethren, if I yet preach circumcision, why do I yet suffer persecution? then is the offense of the cross ceased (5:10-11).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오, 누가 너를 막으며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러한 가르침에 설득되지 아니할 것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5:10-11)

Now, evidently these Paul people were saying, "Well, Paul was circumcised and he's preaching circumcision. You ought to be circumcised, you know." And Paul said, "Hey, wait a minute. I have not. If I preach circumcision, then why would they keep persecuting me? The offense of the cross would cease." Paul was preaching that Jesus paid the complete price for your redemption on the cross. There's nothing that you can add to what Jesus paid. That it is His sacrifice for your sins that brings you redemption and the forgiveness of sins. No effort,

no work on your part. You can't do anything to buy redemption. You can't do anything to buy 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r redemption is totally predicated upon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upon the cross.

이제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또 그는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잠깐만! 나는 할례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왜 그들이 나를 핍박을 합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도 그쳤을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의 구속의 대가를 완전히 치루셨다는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지불한 것 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의 희생은 여러분을 구속과 죄의 용서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함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이나 용서를 사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용서와 구속은 전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These people were adding to it. "The death of Christ for you isn't sufficient. You got to walk the tight rope. You got to keep the law. You got to be circumcised." The message of redemption through the cross was offensive. People were trying to add to it. And that's why Paul was persecuted by the Jews, because he was saying, "The law of Moses is not necessary for righteousness or for salvation. You are saved through the finished work of Jesus on the cross. The cross paid it all."

Paul closes this little section on the idea of circumcision and all and he gets a little testy with those. He said,

I would [wish that] they were even cut off which trouble you
(5:12).

사람들은 그것에 더 가미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에게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긴장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메시지는 거슬리는 것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덧붙이려고 시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은것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의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부분을 할례의 개념과 모든 것에 대하여 끝을 내기를 그들에게 성가시게 하는것들에 대하여 말하며 끝을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5:12)

Or literally, "I wish they were castrated who trouble you. They're trying to cause you to be circumcised, I wish they were castrated." Naughty Paul. We find that offensive in our society today, but in those days, the area of Galatia was the center of the worship of Sybil, and the priests of Sybil would castrate themselves. And so, it was something that was quite familiar the castration. And of the priest of this pagan god. And so, the people of Galatia understood exactly what Paul was talking about. And let's go on. I could quickly get in trouble.

For, brethren, ye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only use not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serve one another (5:13).

또는 문자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할례 받을 것을 권장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장난꾸러기 바울입니다. 요즈음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거슬리는 것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갈라디아 지방은 시빌이란 여신을 숭배 하던 중심지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빌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거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신의 제사장들이 거세 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5:13)

Again, it is not a liberty to do anything I please. It isn't a liberty to live after my flesh. That is not what Christian liberty is about. And if you have interpreted it that way, you have completely missed the message of the scripture. "You've been called unto liberty." That is, liberty in Jesus Christ. Liberty from the law and from the bondage of the law, because that cannot make you righteous. But the liberty is not a liberty to indulge my flesh in anything that I may desire to do after the flesh. It is the liberty not to do those things which the flesh once forced me to do. So, "do not use your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the real key is love, "serve one another."

For all th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even in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5:14).

또 다시 말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는것이 자유가 아니며 나

의 육체를 좇아서 사는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자유를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뜻을 완전히 오해 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에 매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육체를 좇아 하고 싶어하는것을 무엇이든지 육신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란 내 육체가 내게 억지로 하게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정말 중요한 요점은 사랑입니다. **“서로 중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5:14)

So,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One of the lawyers one day challenged Jesus as to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Jesus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with all thy soul, with all thy mind and with all thy strength; and thy neighbor as thyself. And in these are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22:37-40).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If I am walking in the Spirit, if I am walking in love, then there can be no law to regulate my life. You see, laws are for unprincipled people.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도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마태복음 22“37-40).**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행하며 또 사랑으로 행한다면 내겐 어떤 율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If a person is living by right principles, he doesn't need any laws. He is governed by principles by which he lives. Laws are necessary to restrain unprincipled people. Now, if you're walking in love, supreme love for God and supreme love for your fellow man, then there is no law. All of the law is fulfilled. For what the law is actually saying to you is that you should love God supremely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at's all the law is saying to you.

But if ye bite and devour one another, [you better] take heed that ye be not consumed one of another.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and ye shall not fulfil the lust [desires] of the flesh (5:15-16).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원리 대로 살면 그는 아무 법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란 부정직한 사람들을 제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을 하며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최상의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는 율법이 없고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전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15-16)

So, Paul here exhorts us to walk in the Spirit and to live after the Spirit or on the spirit side of our lives. Now, man was created and by God as a living spirit. Created by God, in fellowship with God. God is a superior Trinity; man is an inferior trinity. The superior Trinity is made up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 inferior trinity is spirit, soul and body of man. And it is in the realm of the spirit where man meets God. That's where I come in touch with God. That's where God touches me. In my spirit, in the realm of the Spirit. His Spirit bears witness with my spirit that I am a child of God.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좇아 행하거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령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사귀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월한 삼위 일체 이시며 사람은 열등한 삼위일체입니다. 우월한 삼위일체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구성되었고 열등 삼위일체는 사람의 영, 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곳입니다. 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 갑니다. 성령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Now when Adam sinned, his spirit died just as God had warned, “In the day that you eat, you will surely die” (Genesis 2:17). His spirit died, and Adam broke fellowship with God. For God would not fellowship with man dominated by his flesh. And of course, that's exactly what the temptation led Adam to is fleshly domination. He saw that the tree was pleasant to look upon, it was tasty to eat and it would make him wise as Go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and the pride of life” (1 John 2:16). And they ate, giving over to their fleshly appetites and in so doing, the flesh dominated. The flesh began to rule, and man's consciousness was now filled and absorbed with the body needs and the body appetit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아

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 하신 그대로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7) 그의 영은 죽었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교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담이 육체의 지배를 받도록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보기에 좋았고 먹기에도 맛있고 또 그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한일서 2:16) 그들은 먹어 육체적 욕구에 빠져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육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육이 통치하기 시작 했으며 사람의 의식이 이제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빠졌습니다.

God did not intend man to live that way, because man living that way is alienated from God who is a Spirit. When the emphasis of man became on the physical fleshly side of him, he no longer was one with God, who is a Spirit and must be worshipped in spirit and in truth. And so in the fullness of time, God sent His Son to die for man’s sin, in order that through Him man might be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nd become again a spiritual being.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면이 되었을 때 그는 영이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경배 받으실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또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And so, when Nicodemus came to Jesus, Jesus faced him immediately with this issue. He said, "You’ve got to be born again." He said, "What do you mean? I can’t go back to my mother’s womb and be born again. What are you talking about?" Jesus said, "I’m not talking about that.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but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n’t marvel when I say, 'You’ve got to be born again.'" And Jesus talked to him about the spiritual rebirth, which takes place when a person by faith receives Christ as his Savior. There is a work of God’s Spirit within his heart, and he is born of the Spirit, and now again has a spirit that is alive and is conscious of God. And this is the thing that you try to describe to people, and they don’t understand.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즉시 그 앞에 이 문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무슨 뜻 입니까? 나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6).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 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므로 그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영이 다시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묘사 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The Bible says, “The natural man can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But he that is spiritual understands these things, though he is not understood. And to try to explain to people the things of the Spirit to the natural man, to try and explain the things of the Spirit has got to be one of the most frustrating things in the world. Because you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you can see it, you can understand it; it’s as plain as can be. But because they are not born of the Spirit and have no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dimension of life, you’re talking riddles to them. You’re talking nonsense.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 이니라.**(고린도 전서 2:14)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는 것과 영적인 일을 설명하려는 것이 은 세상에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쉽게 볼수도 있고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삶의 차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amazing, isn’t it, what difference being born of the Spirit really makes. In my attitude towards life. In my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In so many things. Suddenly, I have been born of the Spirit; things suddenly are illuminated. Things which were once a mystery and I couldn’t understand are now very understandable. They’re just revealed by the Spirit. The truth of God to our hearts.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 났다는 것이 무엇을 정말 다르게 한단 말입니까?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물이 갑자기 조명을 받은 것 같이 빛이 납니다. 전에는 신비했던 것들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나타내주셨습니다.

So, you has he made alive who were dead because of your trespasses and sins. Who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among whom we all had our manner of living. As we lived to fulfill the desires of our flesh and of our mind, and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But God has made you alive in Christ Jesus. And now your spirit is alive. And your spirit being alive, again you can experience fellowship with God, the joy, the blessing of fellowshiping with God.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살았고. 여러분의 영적 존재가 살았으며, 다시 하나님과 교제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So, "walk in the Spirit." That is, walk in fellowship with God. Walk on the spiritual side of your nature. And if you do, you will not be fulfilling the desires of your flesh. The flesh will not be ruling over you anymore. The fleshly desires will not be dominating your life, but your life will be dominated by the Spirit, and thus, by God.

For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 so that ye cannot do the things that ye would (5:17).

그러니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본래의 영적인 면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육이 더 이상 여러분을 통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리지는 않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5:17)

There is a warfare that goes on in the life of the believer. Once the spirit has come alive, now there comes this striving for the mastery of me. Will I be mastered by the Spirit or will I be mastered by the flesh? If I am mastered by the flesh, then I have the mind of the flesh. That is, my mind is constantly upon

fleshly things. And the mind of the flesh is alienated from God; it cannot know God.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믿는 자의 삶에는 항상 전쟁이 계속됩니다. 한번 영이 살았으면 나의 지배권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 납니다. 내가 영적 지배를 받을 건가 또는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만약 내가 육의 지배를 받는다면 육의 생각을 가집니다. 즉, 나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육적인 일에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육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But if my life is dominated by the Spirit, then I have the mind of the Spirit. And I'm thinking of God, and I'm thinking upon spiritual things, and the result of life and joy and peace in the holy Spirit. The mind of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of the Spirit is life and joy and peace. The warfare going on. Am I going to yield to my flesh, or am I going to yield to the Spirit? And this comes up every day in many situations, and I have actually the choice in this situation. I can yield to my flesh and I can blow off steam and I can get in and I can fight and I can get into the striving and the whole issue. Or I can walk after the Spirit and say, "Oh Lord, it doesn't matter. Help me, Lord, to just keep the right attitude." And I can just go and pass it by.

그러나 만약에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삶의 결과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됩니다. 내가 나의 육에 굴복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성령에 복종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육신에 굴복하여 불평하며 싸움을 하며 전체적인 문제로 투쟁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가고 그 문제를 넘어갈수 있습니다.

And so, another issue arises in five minutes. Uh-huh, you did that five minutes. All right, you know. And I can choose whether or not to walk in the flesh, or then again, to commit it and walk after the Spirit. You see, it isn't a once-in-forever kind of a thing. It is once that I have reckoned myself to be crucified with Christ when I accepted Him. I was crucified with Christ, but now I have to reckon it in so many situations everyday.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5분 내에 생깁니다. 으-흠, 여러분은 그것을 5 분은 잘 마쳤습

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으로 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맡기며 성령을 좇아 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한번 하면 영원히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때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가지 많은 상황속에서 그것을 인정해야합니다.

"Hey, that old nature, that old Chuck is dead. Let him alone. Don't revive him. Crucified with Christ. Reckon that to be. That's just my old flesh that's upset. That's my old prideful nature. That's the old nature that wants its way, that wants to insist on its own way and all. That's the old nature, reckon that to be dead. That died with Christ. It doesn't really matter, I'm going to walk after the Spirit and I'm going to please God in this. I'm going to walk in love." And so, I have to reckon the old man to be dead each day, and oftentimes, many times through the day.

“여보시오, 그 옛 본성, 그 옛날의 척은 죽었습니다. 그냥 혼자 버려 두십시오. 다시 살리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감정이 상한 나의 옛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자존심을 가진 본성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고집하고 모든 것을 하려는 나의 옛 본성 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옛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 정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좇아 행할 것이며 이 점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옛 사람이 매일, 하루에도 여러번, 빈번히 죽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The flesh is lusting against the Spirit.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They're contrary, and I do not always walk after the Spirit. There are times when I lapse into the flesh. I get an attitude that is not of the Lord. I say something that is not of the Lord. Do you know what happens? Immediately the Spirit speaks to me and says, "That was wrong." "Yeah, but I had the right to do it." And I'll argue with Him for a while.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taking it, Lord. I tried." And you keep dealing with me until I'll finally say, "Oh, God, I'm sorry. I was wrong. Forgive me, Lord. Help me, Lord. Thank You, Jesus, for Your forgiveness and for Your love and for Your grace to me."

육은 성령을 거스리며 정욕을 품습니다. 성령은 육신과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상반되며 내가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타락하여 육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부터 오지 않은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아십니까? 당장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틀렸어.”

“예,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잠시동안 말 다툼을 합니다. “주님께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취했는지 모르십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항복할때 까지 계속해서 나를 다루십니다, 결국 나는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게 베푸시는 당신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And I'm washed and I'm cleansed and I go on. You see, I don't always do the things that I would. But when I do fail, the Spirit is right there, and that's why I know I'm a child of God. You see, if I weren't a child of God, He would just let me go. He wouldn't bother correcting me. It's sort of comforting, you know. David said,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Psalm 23:4). The rod was the thing the shepherd used to hit the sheep on the flanks when they started getting out, you know, roaming out. All right, I'm still one of His sheep, you know. He's just whacked me with the rod. Oh, I'm comforted by that. I'm still His child. Don'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Whom the Lord loveth He chasteneth, and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Hebrews 12:6).

그래서 나는 씻기어 졌고 그리고 나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했던 것들을 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 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정확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압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었을 겁니다. 그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 하시느라 자기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은 평안이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막대기는 양 무리가 곁길로 배회하거나 가려면 목자가 양의 옆구리를 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양 무리의 한 마리입니다. 그는 그의 막대기로 나를 딱 때렸습니다. 오, 나는 그것으로 안위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징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6)

But if ye be led by the Spirit, ye are not under the law.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manifest, which are these (5:18-19),

And he gives to us here a listing, incomplete to be sure, because he ends it by saying, “And do such things.” And so, such things leaves an unending list of things of the flesh. But he lists some of the works of the flesh. These works of the flesh, of course, are related to our body drives, so many of them.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5:18-19),

그리고 여기에 그가 우리에게 목록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끝이 없는 육신적인 것들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일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몸의 욕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sexual impurities],
[wantonness] *lasciviousness, idolatry, witchcraft* [drug abuse] (5:19-20),

The Greek word is *pharmakeia*, translated here *witchcraft*, because in the sorceries, they're into *witchcraft*. They often use drugs, potions; the potions that you'd take, you know, and it'd have their drug related experiences.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5:20),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약을 남용하는 것과),(5:20),

헬라어로 파마케이아 (*pharmakeia*). 여기에는 마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요술에는 그들이 마법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주 마약과 독약을 사용합니다. 그 독약들을 여러분이 먹기 때문에 그들의 마약에 관한 경험이 있는 것이지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5:20)

Interesting to me that heresies is here mentioned as a part of the works of the flesh. And I was challenged by that for a while. I began to think it through and I thought, "Yes, it is a work of the flesh, because usually a person gets into heresy to attract attention to himself." You know, you come up with some heretical teaching, you get everybody excited and everybody's listening, everybody's beginning to discuss what you're teaching. And the old flesh likes to get people excited and stirred up like that. And people to follow after me, you know. Here I've got this new twist on the scripture. No one's ever seen this before but oh, bless God, He's revealed it to us in these days. And you develop your own little following, which really appeals to your flesh. The works of the flesh.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이단들이 육체의 일의 일부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동안 그것으로 인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 이

건 육체의 일이지. 왜냐하면 통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위해 이단에 들어가기 때문 이거든.” 여러분이 어떤 이단 교리를 가르게 될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흥분 시키면 모두가 듣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토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은 사람들이 흥분되어 선동하는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다. 여기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전에 본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최근에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육을 나타내기 당신 자신의 말을 뒤에 붙칩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lings, and such like
(5:21):

So, the such like covers a lot of things.

of the which I tell you before, as I have also told you in time past,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5:21).

This is indeed strong language for you who want to live after the flesh. As we go down these things here, these are the things that God will exclude from His kingdom. These things are not allowed in the kingdom of God. If you want to be a subject in God's kingdom, then you cannot do these things. You cannot be ruled and dominated by your flesh.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5:21);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많은 것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5:21)

사실 육체를 좇아 살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은 것들을 따라 내려 가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제거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통치를 받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Now, it is interesting, a list similar to this is given to us in Revelation the twenty-first chapter, as it tells us those who are going to be excluded from heaven and outside were those who were doing these things: "The fearful, the unbelieving, the abominable, the murderers, the whoremongers, the sorcerers,

the idolaters, and the liars,” those who are outside. And so, Revelation 21:8 if you want the reference on that. And then there’s another reference also in Revelation, “but outside or the dogs and adulterers and so forth.”

이제 흥미 있는 일은 이와 비슷한 목록을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으며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요한 계시록 21:8)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조 할 것도 요한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등등은 성밖에 있으리라” (22:15).

This is heavy. The works of the flesh. It’s a solemn warning to every one of us who would live after the flesh or would want to live after the flesh to know that you cannot do these things and inherit the kingdom of God.

But the fruit of the Spirit (5:22)

심각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육을 좇아 살려거나 또는 육을 좇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근엄한 경고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5:22),

Now, “walk in the Spirit, you’ll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Be led by the Spirit, you’re not under the law. The law forbids these things, but the law of love also forbids them.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5:22),

이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5:16)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런 것들을 금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도 그런 것들을 금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5:22),

Now notice, works of the flesh, works plural. So all of these things fall under the category of works of the flesh, but the “fruit of the Spirit,” fruit is singular. So there’s only one real fruit of the Spirit, that is love. These other words

are defining what the agape love actually is. So, joy is love's consciousness. You ever seen a person in love and all of the joy that they have?

peace (5:22),

육체의 일들은 일들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것에 주목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들의 한 종류로 묵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사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 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사랑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한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화평 (5.:22),

You remember as Paul defined love for us in I Corinthians chapter thirteen, he uses longsuffering. “Love suffereth long and is kind.” This agape love is gentle; it is good. The word faith here is trusting. It is...it has a, perhaps, a naiveté about it in that it does trust.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정의를 내려 준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선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는 신뢰하는것입니다. 그 신뢰 안에는 아마도 꾸밈이 없는 천진난만함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You know I've been burned so many times by trusting men, but I pray, "God, never make me jaundiced." I'd rather trust and be burned than not to trust. True to the Spirit. This kind of love is a trusting love. Not to the place of being ridiculous. Some guy comes up and says, "Hey man, I got a watch, genuine made, you know. I need money to get home. Can you give me, you know, a hundred dollars for this watch?" I'm, you know, not stupid.

Meekness (5:23),

“Blessed are the meek” (Matthew 5:5).

나는 여러 번 사람을 믿다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웅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는 믿고 당하는 것이 안 믿는 것 보다 낫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 여보십시오. 내가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 합니다. 내게 시계 값으로 한 백 달라 만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온유(5:2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5),

temperance (5:23):

Now, the word temperance is one we have a little difficulty with. We don't understand that word too much. Let's use an opposite word, intemperant. A person doesn't lose his temper. He's temperant. Now,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5:23).

절제(5:23),

절제(temperance) 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썩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반대 되는 단어, 부 절제, 방종(intemperate)을 써 봅시다.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제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5:23)

I mean, if you're walking in love, what rules can you lay down? What can you say to a guy? You see, you don't need any laws. All of the bases are covered. They're covered by the fact that you're walking in love.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5:24)

내 뜻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다면 어떤 법을 나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법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함으로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24).

Paul had written in the earlier part,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Romans chapter six, "Know ye that the old man was crucified with Christ? Therefore reckon ye yourselves to be dead with Christ, but alive unto God through Him" (Romans 6:6,11). So,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with its desires]. [For]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Let us not be desirous of vainglory (5:24-26),

바울이 앞 부분에서 쓰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로마서 육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롬 6:6,11).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5:24-26),

Now, these men who were coming with this teaching were really out to get notches on their belts. The kind that were always talking about numbers. "We had ten thousand souls saved last week. Look at all the notches on my belt." Men that have followed after my perverse teachings. "Desirous of vainglory,"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5:26).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명성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언제나 숫자만 언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10,000 영혼을 지난주에 구원 했습니다. 나의 벨트에 찍힌 것을 보십시오.” 와우, 나의 왜곡된 가르침을 그 많은 사람이 따라 왔습니다. “헛된 영광을 바람.”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 하지 말지니라.(5:26)

Glory, the glory of man is indeed empty; it's vain. Don't seek after it. You'll be disappointed. It will create a lot of enemies. It will create a lot of envy and a lot of provocation.

영광, 사람의 영광은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망 할 겁니다. 그 헛된 영광을 추구 하면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질투와 많은 노여움을 만들어 냅니다.

Chapter 6

Bretheren, if a man be overtaken in a fault,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thyself, lest thou also be tempted (6:1).

The Bible does seem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sins and faults, though I think that the distinction is probably quite narrow. But James said that “if there’s any sick among you,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anoint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shall raise them up. And if they have committed any sins, they shall be forgiven them” (James 5:14-15). And then he said, “Now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James 5:16). Now, there is really no place in the scripture where we’re told to confess our sins one to another. We’re to confess our sins unto God. An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f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But we can confess our faults to one another.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6:1)

나는 죄와 잘못의 차이가 아마 대단히 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차이를 크게 구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14-15).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또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야고보서 5:16)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한 곳은 실제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한 일서 1:9).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Now, a lot of people have gone into some real trouble over these confessional things, you know, where we’re all going to confess our sins to each other. And a lot of hurt has come from that. A lot of damage has come from that.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I heard of three ministers who got together and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purge their consciences by confessing their sins to each other. First minister said, "Well," he said, "I have a problem with drinking." He said, "Don't anybody know this, but I keep a bottle at home all the time." He said, "I'm just a private drinker, not a social, but I'm a private drinker. And I just have to have my bottle, and every night before I go to bed I have a drink or two." Next minister said, "Well, my problem is women; I just can't seem to get free from lust. And I just really have a strong lust after women and all. It's just really terribl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And he started telling of some of the women and all. Third minister said, "Well, my sin is gossip, and I just can't wait to get out of here."

세 명의 목사가 모여서 그들 각자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써 양심을 깨끗케 하기로 결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말하기를 “어, 나는 술 마시는 문제로 시달립니다.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언제나 술병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교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마십니다.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한 두잔씩 마셔야 합니다.” 다음 번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어, 나의 문제는 여자입니다. 나는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여자에 대한 강한 정욕을 느낍니다.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가 말합니다. “예, 나의 죄는 잡담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나갈때 까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You got to be careful of these confession services. You don't know who might have the sin of gossip.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I'm at fault. I was wrong. It's good to confess. It's hard. I think those are probably the three hardest words to say, "I was wrong," especially if you're talking to your wife. You don't want to be wrong. Confess your faults. Be willing to confess when you are wrong. Be willing to confess when you've made a mistake. Confess your faults. "I was too hasty in my judgment. I spoke when I should have been silent. I was wrong when I said that."

여러분은 이런 고백 서비스들을 조심 하십시오. 누가 그 잡담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부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트리를 원치 않을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을때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여러

분이 실수했을때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성급히 판단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켜야 했을때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것은 잘 못했습니다.”

Confess your faults to one another. Now “if a brother be overtaken in a fault,” and this, I believe, does refer to this business of the heresy, because it’s all in context. Someone has gone out and gotten circumcised in order that they might be righteous. He’s overtaken in his fault. Faulty teaching.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너희 잘못을 서로 고하라. 이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믿기는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것은 이단에 대한 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워 지기 위하여 나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으로 압도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6:1)**

Now, I think that this can go beyond this, as far as the restoration of a brother. “If a brother be overtaken in a fault,” in a faulty relationship,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Now, God’s desire is not to damn the sinner, but always to restore the sinner. And if I take the attitude of damning everybody that does wrong, then I’m not taking God’s attitude towards man. And it’s unfortunate that many people have that concept of God, that He’s wanting to damn every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Not so. God wants to restore every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형제들간의 회복에 있어서 서로 고함으로 이러한 시험을 넘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된 관계에서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죄인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잘못된 모든 사람을 경죄한다면 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본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잘못된 일이 있는 자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If you have sinned, it isn’t God’s desire to destroy you. It’s God’s desire to restore you. And if I am going to be a servant of God walking in love, then I must seek to help in that restoration process. Not to push you down further. Not to say, "Oh well, I knew that guy was a flake anyhow, you know." But to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not to come in a haughty spirit. Not to come in a spirit of judgment and condemnation and lay down the heavy hand of the law upon the guy and say, "How could you do that? How could you do that, man?" But to restore him in the spirit of meekness realizing, "Hey, I'm capable of doing the same thing. Were it not for the grace of God and the power of God's Spirit, I could be guilty of the very same thing."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을 파멸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나는 그 바로 세우시는 과정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조잡스러운 사람 인 것을 나는 알았었어요." 라고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온유함 같이 원상 복귀 시키고 오만한 심령으로 하지 마십시오. 판단과 비난의 심령으로 오지 말고 그 사람 위에 율법이라는 무거운 손을 올려놓고 말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면서 자신도 " 그렇지, 나도 그런 똑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같은 일을 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And so "restoring him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So,

Bear ye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 the law of Christ
(6:2).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2)

He bore our burdens for us.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1 Peter 5:7). He's willing to bear your burden, now we need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us, we fulfill the law of Christ. When one member suffers, they all suffer. And within the body, we need to have that kind of a sensitivity, whereby we can minister more effectively to each other when there is a need, when a brother is in need. When a brother is hurting, that we can stand with him and encourage them and support them, and that we bear one another's burdens. That's what the Lord would have us to do. S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는 우리대신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5:7). 그는 여러분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통 할 때 그들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민감해야 합니다. 어디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효과적으로 서로를 도와 줄수 있습니다. 형제가 필요를 요 할 때 형제가 다쳤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서서 그를 격려하고 후원해 줍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하라.”

For if a man think himself to be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th himself (6:3).

He's not deceiving those around him.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is category who really think they are something when they are nothing. Have you ever met one of those persons? I have met so many. Self-deceived. Self-deluded.

But let every man prove his own work, and then shall he have rejoicing in himself alone, and not in another (6:4).

만일 저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6:3)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무엇이나 되는 것같이 생각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 보았습니까? 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에 의해 현혹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6:4)

You know when God has revealed some special exciting truth to your heart, so exciting, so new, so novel, so different, and you feel that the whole body needs to share and know this truth that God has revealed to you, please do us the favor of allowing us to observe how this truth has transformed your life more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Let us see what it has done in you to make you a better servant of God. And then, when we observe the fruit of this truth in your own life, we'll come to you and ask you about it. But don't come lay your trips on us. Prove, let every man prove himself. Then you'll have something really to glory in. Let it be proved in your own life. Let us see the result as it is worked out in your life. And then you can rejoice in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감격스러운 진리를 나타내실때, 너무나 흥분이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새롭고 고귀하고 다른 이 진리를 온 교회에 나누워 알리기를 원할 때,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도록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 진리의 열매를 관찰할수 있을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에 관해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계획을 늘어 놓지 마세요.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역사할 때 그 결과를 바라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할수 있습니다.

For every man shall bear his own burden (6:5).

Now he's just told us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that is important. But you can't lay your burden on everybody else. You've got to bear your own burden, too.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are always trying to unburden themselves on everybody else so they don't have to carry it. You know, they burden everybody they get around with their burden. And then they walk away and say, "All right, now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anymore, you know. I've dumped it on somebody else." I have a lot of people dump burdens on me. My wife said, "Why do you think God gave you broad shoulders?" I was telling her about something that was dumped on me the other day and she...not much sympathy at home, just good exhortation. Poor baby.

각각 자기 짐을 질 것 임이니라.(6:5)

이제 그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해주었으며 그것은 중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짐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울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항상 자신들의 짐을 벗어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그냥 어디로 가 버리며 말하기를 “좋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게 짐을 지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넓은 어깨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내게 지어진 짐에대하여 그녀에게 말을 했는데 — 집에서도 별로 동정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훈계뿐 이지요. 딱한 일입니다.

Now, verse six is an interesting verse. And I don't want to really expound upon it. But Paul is declaring that,

Let him that is taught in the word communicate unto him that teacheth in all good things (6:6).

이제, 육 절은 참 흥미로운 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 상세히 설명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6)

The Bible says that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hire" (Luke 10:7). "Don't muzzle the ox that treads out the corn" (Deuteronomy 25:4). "The husbandman is first partaker of the fruit" (2 Timothy 2:6). And let me say that God has abundantly blessed me, and has blessed me in every way possible. He has blessed me physically, good health. He has blessed me spiritually, in my walk and relationship with Him. He has blessed me financially. He has blessed me in every possible way. And I thank God for His blessings. So I am not going to poor mouth and say, "Oh, now you should communicate to your teacher in all good things, you know, and see he's taken care of." God does take care of me. Takes care of me very well.

성경은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7) 라고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신명기 25:4). "수고 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디모데후서 2:6). 내가 할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 하셨습니다. 나를 신체적으로도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셨고 영적으로도 나의 행함이나 주님과 의 관계에도 축복 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주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 한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것입니다, "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좋은 일을 여러분의 선생과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너무 잘 돌보아 주십니다.

In fact, I love to be able to go out and minister God's love and God's truth to people without charge. I've sort of independent like Paul in that way, and in that respect, and I love to go out and and people say, "Well, how much do you charge to come?" I say, "I'd never charged anybody to go." And wherever I go and people ask about expenses, I always tell them, "Look, my Father is extremely wealthy and He takes care of all of my need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aking care of me, my Father has given me a lavish expense account." God is good. And God has blessed me, for which I give Him thanks. And you have blessed me.

사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아무 값 없이 전할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처럼 독립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럼 당신이 오시면 사례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아무 에게도 값을 치루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 봅니다. 나는 언제나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지극한 부자이신데 그가 나의 필요한 모든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에게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후하게 쓸 수 있는 통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I'll tell you, the rewards of the ministry are just fantastic. Every week I'm receiving such glorious letters from people whose lives have been blessed by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And what a blessing that is to me when people share what God is doing in their lives through the Word and through the teaching of the Word. I'll tell you, I just sit there and I just am blessed, am blessed, am blessed. So, *communicate*, the word literally in Greek means to, "in all good things," it refers to finances and food and things of this nature. But there is communication also, just verbally, and by letters, and just a thank you many times is so rewarding. You know, you maybe have just gone through a hassle or something, you go to get the mail and then you start getting this. Of course, we also get the other kind of mail, too, but I don't read that.

목회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축복 받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러운 편지를 매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나눌때 그것이 내게는 말할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말하지요. 나는 거기 그냥 앉아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다 (*communicate*)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든 좋은 것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것과 음식이나 이런 종류의 것 을 가르킵니다. 그러나 교통 역시 그냥 구두로 하는 말과 편지로 하는것이며 그냥 감사는 늘 값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이나 또 어려움을 겪을때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받기도 합니다만 나는 그런 것들은 읽지 않습니다.

Now, we read a little bit ago about a person who thinks he's really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is just deceived. Paul now again says,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For he that soweth to his flesh sha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he that soweth to the Spirit shall of the Spirit reap life everlasting (6:7-8).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같이 생각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7-8)

I believe that man is sowing into the fertile field of his mind every day and you can be sowing to the flesh. It is difficult in this age not to sow to the flesh. There are so many magazines being published, the sole purpose is to feed the flesh, to excite the flesh, to excite the desires of the flesh, to incite and inflame the flesh. So many movies, so many TV programs—all designed to sow to the flesh, to get the flesh excited. Don't be deceived. If you watch these movies, if you look at these magazines, if you feed your flesh, then you are going to reap of the flesh corruption. Don't be deceived. You cannot feed the flesh and reap of the Spirit.

내가 믿기는 사람은 매일 자기의 기름진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 이 세대는 육체에 씨를 뿌리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잡지들이 발행됩니다. 유일한 목적은 육체를 먹이기 위한 것이고 육체를 흥분 하게 만들며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며 선동하고 육체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영화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고 흥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영화를 보며 이런 잡지를 읽어서 여러분의 육을 먹이면, 육체로 부터 썩어질것을 거두게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육을 먹고 성령으로부터 거둘수 없습니다.

And many of you are having problems with your flesh simply because you're sowing to the flesh. The eye gate is an important gate into the soul of man. And you are affected by what you see. You know, it's such a horrible thing to plant garbage into the computer.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눈

의 문은 사람의 영혼으로 통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는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쓰레기를 컴퓨터에 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The other day as I was out in the yard working. I don't know what juices went together to create the electric spark that went across my brain, but when I was a little kid about seven years old, some dirty guy sang a dirty song. And you know, here years later, that dirty song came back into my mind. And I thought, "Oh God, that's horrible that that kind of rot was planted in my brain when I was just a little kid. And those big guys that sang that song when I was there as a little kid, polluting my mind, planting that garbage in there. And it's still there. I can't rid it out of my mind." Oh I don't...that's the first time, you know, and I haven't... I can't even remember what it was now. I just remember as a dirty song the other day that came into my mind that I heard when I was a kid. I thought, "Oh, garbage!" Of course, I immediately began to sing choruses and praised the Lord, and to put that stuff back into the garbage pit from which it came.

그저께 내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액체가 전기의 섬광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곱 살 정도의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떤 더러운 친구가 더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더러운 노래가 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부패한 것이 나의 두뇌에 심겨졌다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 큰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며 나의 마음을 오염시켜 그곳에 쓰레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그것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냥 기억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더러운 노래였다고 기억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오, 쓰레기!” 물론 나는 즉시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그것이 나온 곳에 도로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But you're sowing. You're sowing either to your flesh, or you're sowing to your spirit. And what you sow you're going to reap. That's natural. That's life. Don't be deceived on that issue. Now, the beautiful thing is, is that we can sow to the Spirit. That's what we're doing tonight. "Thy word, O Lord, is life and it is Spirit" (John 6:63).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it's able to cut between the bone and the marrow, and between the soul and the spirit" (Hebrews 4:12). And the word of God feeds our spirits and as we sow to the Spirit, then of the Spirit we're going to reap life everlasting.

그러나 여러분은 심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심거나 또는 영에 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문제 관하여 속지 마십시오. 이제, 아름다움은 우리가 성령에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나니”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먹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에 심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So what am I planting in, that is so vital, because what I'm planting in is what's going to come out. And if I'm planting to my flesh, it's going to come out of the flesh. If I'm planting to my spirit, it's going to come out of the Spirit. How important that we do more sowing to the Spirit. God help us. We're living in horrible days in many sense. We have all of these modern conveniences; all designed to take us a little further away from the Lord. To absorb our time. So easy to turn on the TV and get involved in the fantasies of TV. Some mystery, some story, some romance. What a waste of time. So easy, isn't it? Sow to the flesh. So easy. But “don't be deceived; whatsoever a man sows, that will he also reap.”

And let us not be weary in well doing: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6:9).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육에 심었다면 육으로 나올 것 이며 만약 내가 나의 영에 심었으면 성령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령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모로 무서운 나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현대판 편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빨아 먹습니다. 너무나 쉽게 TV를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의 환상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신기하고 좋은 이야기이며 좋은 로맨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육체로 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6:9)

Now, you start sowing to the Spirit and you want an immediate crop, you know. We sow to the flesh, we want God to stunt the growth, you know. "Don't

let it come up, God." But if we sow to the Spirit, then we want immediate results. "Hey, Lord, I prayed about this five minutes ago. Now when you going to do something?" You know. "Be not weary in well doing." Don't give up. Don't get discouraged. "In due season, God's timing, we will reap, if we faint not." What if we faint? Well, we probably won't reap.

As we have therefore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especially unto them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6:10).

이제, 여러분은 성령에 심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즉시로 곡식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육에다 심고 그것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심는다면 우리는 당장 그 결과를 원합니다. "보세요! 주님, 기도 한지 약 오 분이 되었습니다. 언제쯤이나 해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마십시오. 낙심 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6:10)

Let that be our rule of life. Let's do good to all men. Now Paul writes a personal note. He said,

Ye see how large a letter I have written unto you with mine own hand (6:11).

그것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삼읍시다. 모든 사람을 선대 합시다.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노트를 적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6:11)

Most of Paul's letters were dictated, because that was just the usual way in those days. They'd have a stenographer who would write their letters for them. And most of Paul's letters were dictated. This Galatian epistle, it is thought that he wrote in his own handwriting. And so the large letter could refer to the size of the letters, because he had bad eyesight. And so, it could be that he wrote very large so he could see what he was writing. Or it is possible he is referring to the length of the letter, because if he wrote the whole letter to the Galatians in his own hand, it was a long letter for a person to write himself. So, "you see how

large a letter I have written unto you with mine own hand.” Again, could be a hint or an indication towards Paul’s weakness of his flesh.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불러 주어 받아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속기사가 있어 속기사가 그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바울의 편지도 그렇게 받아서 쓴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글씨가 편지의 모양의 크기를 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쓴 것일수도 있습니다. 또는 편지의 길이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나하면, 만일 그가 편지 전내용의 긴 편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전체의 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의 손으로 직접 썼다면 이것은 쓰는 사람에게는 편지의 전체를 자신이 쓴다면 한 사람이 쓰기엔 대단히 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6:11)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암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리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As many as desire to make a fair show in the flesh, they constrain you to be circumcised; only lest they should suffer persecution for the cross of Christ (6:12).

They’re going along with the crowd. They don’t want to suffer the persecution for the cross of Christ, so they go ahead and preach the law of righteousness.

For neither they themselves who are circumcised keep the law; but [they] desire to have you circumcised, that they may glory in your flesh (6:13).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6:12)

그들은 군중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 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6:13)

That they may glory in their conquest, in their converts.

But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and I unto the world (6:14).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과 그들의 개종한 사람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6:14)

Forbid it, Lord, that I should boast, save in the death of Christ my God.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in anything but the cross of Jesus Christ. Not glory in the work that God has done through me, not glory in anything that I have or I have done. But glory in the work of God for me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I glory. "By whom the world is crucified unto me, and I unto the world." That is, I am dead to the world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 thing, nor uncircumcision, but a new creature (6:15).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내가 자랑 하는 것을 막아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자랑하는것을 막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이나 내가 가진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6:14)."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6:15)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relationship. What is important is that I am a new creature in Christ. So from now on,

And as many as walk according to this rule, peace be on them, and mercy, and upon the Israel of God. From henceforth let no man trouble me [don't bug me]: for I bear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6:16-17).

이와 같은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 하나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부터는 말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6:16-17)

Paul, one of the writers, I don't know, Hebrew writers said, "Ye have not yet resisted unto blood, as you were striving for the truth" (Hebrews 12:4). But Paul did. "I bear i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Scarred.

Brethre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6:18).

바울, 저자 중에 한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12:4).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남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6:18)

Father, we thank You now for the word of God and this opportunity tonight of studying again that we might sow to the Spirit. For Lord, we want to reap of the Spirit. God, we want to walk in the Spirit. We want to be led by the Spirit. We want to live in the Spirit. We want to be controlled by the Spirit. We want the fruit of the Spirit to be evidenced in our lives. We present our bodies as a temple that Your Holy Spirit might indwell us. In Jesus' name. Amen.

God bless, fill your hearts with His Spirit, and walk in the Spirit. Sow to the Spirit that you're going to reap of the Spirit life abundant through Jesus. Hallelujah!

아버지, 감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공부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우리는 성령을 거두기를 원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관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사시는 교회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성령과 행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삶을 거둘 수 있는 성령에 심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